



금강산

3

주제 105(2016)
부제 제319호 월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16 ISSN 1727-9062

그리움은 나의 행복

그리움을 안고 절절하게 (♩=74)



1. 눈 부신 - 그이 영상 그리며 행복에 - 설레 이던- 마음- 깊은



밤 - 꿈 속에 서 뵈 오면 그기 뿐 진정 할 수 없 네 -



아침 - 꿈처럼 - 오시려나 사- 무 친그리 - 움 더 옥간절 - 해



마음은 - 나래 쳐 - 마중가-네 원- 수 님 오실 그 길에

2. 원수님 우릴 찾아오시면 기쁨만 아뢰이고 싶어
위훈의 그 자욱을 수놓아 날파 달 꿈결같이 가네
오늘도 꿈처럼 모시고파 사무친 기다림 더욱 간절해
마음은 남먼저 달려가네 원수님 오실 그 길에

3. 가슴에 그리움이 없으면 인생은 해가 없는 하늘
그이를 몸가까이 뵈옵는 그보다 더 큰 행복 몰라
날마다 꿈처럼 뵙고싶네 친근한 아버지 우리 원수님
마음을 언제나 잊고 사네 원수님 오실 그 길에

작사 박경심
작곡 현경일

차례

-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

건설의 대변영기를 펼쳐주시여 3

일화

민족적 특색을 살려나가도록 5



창조와 혁혁 6

조국의 깨일이 그려지는 곳 14

수기

해박한 석견에 머리숙입니다 16

선군과 민족의 존엄 1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준엄한 봄 18

-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항도자 -

인민의 자주적 요구 실현을 제일 목표로 내세우고 20

산길로 성사업의 확고한 전망 21

-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맞으면서 -

더 많은 어린이 식료품 생산을 위하여 22

혁신의 불바람 24



《온통 우리 의경인에 정말 좋습니다》 26

수기

왕의 축일이 되여 훌려보낸 나날을 더듬어 29

녀성연구사의 사색과 탐구의 원천 30

위인의 옛 모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32

조국의 품에 안겨

언제나 조국을 마음에 안고 34

고향소식

천남마을 주민들의 지향 36



봉고실은 동생을 그리며 38



인상기

걱정이 아니라 신심을	39
내가 느낀 모든것을	39
조국과 함께 25년	40
자기 힘으로 걸어나가는 조국	42

시

삼가 꽃바구니 드리옵니다 43

민족의 향기

봄계절의 향취 풍기는 달래김치 46

아동자전거에 깃든 마음 48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4) 49

야화

신묘한 명화 50

사화

초현보다도 말을 50

력사인물

발해봉건국가의 건국자 대조영 51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민족예술 52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53

짓밟히우는 여성들 54

지을수 없는 문화재략탈범죄 (2) 55

상식

수박회와 대권도 31

정신적스트레스를 미리 막으려면 35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관직, 관리를 부르는 말 54

유모아

먼저 앉으려다 48

조선속담 (슬픔) 56

- 어제와 오늘의 다르게 -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주시여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해에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몇 달전에 왔던 나도 어리둥절합니다.』 ...

일리가 있는 말이다.

평양을 감돌아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의 흐름은 변함이 없건만 조국은 나날이, 시간당 끊임없이 변모되고 있다.

이 땅에서 살고있는 사람들도 미처 알수 없을 정도로 조국은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다.

아니, 짚어지고 있다고 말해야 할것이다.

집집마다에 현대적인 가구들과 부엌세간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체육인살림집 등이 일떠서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지고 종합적인 문화후생시설을 그흔히 갖춘 류경원, 곱등어가 춤을 추는 통라곱등어관과 물놀이로 흥성이는 문수물놀이장, 리상적인 각도로 된 주로에서 마음껏 스키를 탈수 있는 마식령스키장 등의 창조물들에서 인민이 퍼워올리는 웃음소리 그칠새 없다.

어디 그뿐인가.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을 따라 초고층살림집들과 뚝음식살림집들, 150여개의 봉사망들이 전개되어있고 전자자리길 모양으로 털래쳐오른 듯싶은 초고층살림집우에 세워진 상징탑이 멀리서도 보이는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설계된 과학기술전당은 나날이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도 평양으로부터 분계연선의 자그마한 섬마을에 이르기까지, 기념비적건축물로부터 아동공원에 이르기까지, 초고층살림집으로부터 과학연구기지에 이르기까지 건설의 내용과 형식, 건축의 주제와 양상 등 모든 면에서 새시대의 표준이 날에 날마다 창조되고 있다.

이것은 조국에서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건설의 대번영기,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되고 로숙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말기고하신 조국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헌신의 날과 달을 보내시였다.

그 날과 달들에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건축사상을 더 높은 경지에로 계승발전시켜나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102(2013)년 11월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대학을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의 전초기지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대학의 명예총장이 되겠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고 나라의 건축을 떠나고나갈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파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를 발표하시여 건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건설에서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와 편의를 최우선시,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보장,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 등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주체103(2014)년에는 건설은 강성국가의 기초를 다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선이라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시는 한편 인민군대가 앞장에서 건설의 전성기를 펼쳐나가도록 힘있게 이끄시였다. 그리고 인민군대에서 발휘되는 모범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으며 건설의 전반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였다.

때로는 한창 건설중인 초고층살림집의 총

- 어제와 오늘의 다르게 -

를 한층, 한층 오르시며 건설정형을 알아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람세찬 건설장을 찾으시여 수첩에 그림을 그려가시며 건설의 3대요소인 설계와 시공, 건재보장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이르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승마장이라면 말과 자연미, 스키장이라면 눈파 신선미, 물놀이장이라면 물과 현대미라는 종자를 확고하게 들어쥐고 두루마기애 구두를 신은것과 같은 불일치를 없애면서 건축물의 내외부형성에 종자가 일관하게 판통되도록 하고 개개의 건축물들이 자기 특색과 고유한 미를 다 갖추도록 하며 건축물을 일떠세우는데서 3대요소인 설계와 시공, 건재는 물론 농지조성과 불장식지어 간판과 마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조형예술적으로 결합되도록 하나하나 이끌어주시였다.

대동강기슭에 솟아오른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조선동해지구에 세워진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한 건축물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이 건설장을 찾으시여 공사현장을 구석구석 돌아보시며 가구비품들과 유희시설, 내부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환경을 아이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고 지능계발과 도덕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꾸리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어디 그뿐인가.

그이께서는 과학자들이 그리는 설계도우에 조국의 앞날이 그려지며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드립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주체103(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몸소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자주택지구를 건설할것을 직접 발기하시였으며 그 건설부지도 정해주시였다. 그리고 그해 6월에는 대형화물자동차들과 기중기차들이 수시로 다니는 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

곳곳에 풀재가 쌓여있고 바람에 먼지가 날리는 험한 길을 몸소 걸으시며 그이께서는 과학자살림집건설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질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밑에 건축물을 백점, 만점짜리로 완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주시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또다시 그곳을 찾으시여 위성과학자주택지구는 건축에서 선 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을 지킬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또 하나의 리상적인 주택지구이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쭉섬에 인민대학습당과 같이 규모가 대단히 큰 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울 대담하고 통이 큰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2월 또다시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찾으시여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흡잡을데없이 인민들이 찾아와 마음껏 과학기술을 습득하는 정든 집으로 건설하도록 공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과학기술전당건설이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되도록 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10월 훌륭히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방대한 자료기지를 구축하였을뿐아니라 전자열람실들을 수많이 꾸려놓음으로써 누구나 찾아와 마음껏 과학기술을 배울수 있게 되였다고 매우 만족해하시였으며 올해 1월 1일에는 과학기술전당의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조국땅우에 일떠서는 하나하나의 창조물들 모두가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완벽하게 건설되도록 집중적으로 세심한 지도를 주신 그이의 령도는 끝이 없다.

지금도 조국인민들이 잊지 못해하는 나날이 있다.

그이께서는 방대한 규모의 문수물놀이장을 훌륭히 건설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깊은 밤에도 건설장을 찾고 찾으시였고 물놀이장모형사판을 집무실에 두고 보고 또 보시며 탐구의 긴긴밤을 지새우시였다. 그 나날 그이께서 보아주신 물놀이장형성안만 하여도 113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완공을 앞둔 때에는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였다.

그렇게 평양과 원산에 육아원과 애육원이 일떠서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개건되고 평양양로원이 건설되고…

참으로 하나하나의 건축물들마다에 어린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을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수 없다.

정녕 그이의 세심한 손길이 있어 이 땅에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질수 있었으며 그렇게 마련된 수많은 창조물들마다에서 인민들이 주인이 되여 그것을 마음껏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일화

민족적 특색을 살려 나가도록

평양양로원건설이 진행되던 주체104(2015)년 3월 어느날이였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며 평양양로원건설을 직접 발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흙먼지 날리는 평양양로원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시공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물의 외부 및 내부형성을 민족성이 살아나게,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게 시공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침실은 보양생들의 기호를 고려하여 온돌침실과 침대침실을 같이 꾸려주어야 한다고, 식사실은 늙은이들의 나이와 심리에 맞게 가정적분위기를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이많은 노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단설치를 하는 문제, 보양생들이 적당한 운동과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할수 있도록 운동실, 오락실, 도서실, 영화관을 꾸려주는 문제 그리고 보양생들의 건강상태를 관찰하고 그에 알맞는 대책을 세울수 있는 치료실을 비롯한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와 같은 편의시설들도 잘 꾸려주는 문제, 야외식사와 산

보도 할수 있게 내정을 특색있게 꾸려주는 문제, 노인들의 건강장수에 이바지할수 있게 양로원에 수경온실과 터발을 꾸려주는 문제, 평양양로원에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를 도입하며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는것을 비롯하여 환경정리를 잘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세심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립으로써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평양양로원을 훌륭히 완공하였다.

주체104(2015)년 8월 준공을 앞둔 평양양로원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합각지붕을 떠이고 조선식건축물로 솟아오른 평양양로원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볼수록 멋있다고, 평양양로원은 건설에서 주체성, 민족성을 살리며 민족건축형식을 발전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의도가 완전무결하면서도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멋쟁이건축물이라고 하시면서 못내 기뻐하시였다.

본사기자

평양양로원



본사기자 엄향심

- 01제작 오늘의 다른개 -

창조와 혁신





- 어제와 오늘의 다르개 -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마식령스키장

문수불놀이장



마림승마구역부

평양육아원





천지개벽, 천도개벽의 자랑찬 년대기로 빛나는 새로운 주체 100년대이다.

끊임없는 기적과 앙양으로 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게 비상히 놀라운 속도로 전면되고 있다.

21세기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내 조국의 하늘가에 로동당만세소리, 일심 단결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 있다.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김성철



조국의 래일이 그려지는 곳

얼마전 미래과학자거리를 지나던 우리는 길가던 사람들이 속삭이는 말을 듣게 되었다.

《저 미래과학자거리의 상징탑을 평양건축종합대학 학생이 설계했대요.》

《어디 그뿐인 줄 아나. 과학기술전당안에도 그들이 설계한 것이 정말 많다누만.》

우리는 이 땅에 자기의 성실한 자욱을 새겨가는 그들의 모습을 지면에 담고싶어 평양건축종합대학 건축대학을 찾았다.

대학을 찾으니 조국땅 방방곡곡에 일떠서게 될 건축물들에 대한 건축설계형성안을 최

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해 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탐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와 만난 건축대학 학장 홍성룡은 중요대상건설파제가

나설 때마다 협의회를 열고 유능한 교원, 연구사들로 설계집단을 꾸려주고 주, 월마다 그 진척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고 있다. 건축설계심의 체계를 바로세우는 한편 과제수행에 실력이 높은 박사원생들과 학생들을 적극 망라시켜 그들이 현실에서 착상을 많이 하고 실천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는 우리를 교육과학전시관, 미술실기실, 외국어시청각실에 이어 컴퓨터설계실로 안내했다.

설계실에 들어서니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로 살림집, 공공건물, 학교 등 건축물들을 설계하고 있었다.

이들중에는 미래과학자거리

상징탑을 설계한 최광국학생도 있었고 평양국제비행장 2항공역사 출발수속홀을 설계한 김금원학생도 있었다. 그들은 선편리성, 선미학성의 원칙에서 지형, 지세에 어울리면서도 건축립체의 형성수법을 다양하게 리용한 건축물들을 척척 빚어내고 있었다.

정말 멋이 있다는 우리의 말에 최광국학생은 《이렇게 순간에 빚어지는것 같지만 사실은 현지에 나가 대상건물과 주변환경을 충분히 료해한데 기초하여 수많은 국내, 국제자료들을 연구하면서 그 대상에만 맞게 설계한다는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명국건설의 맨 앞장에 서있다는 긍지를 안고 몇백밤을 지새워도 힘든줄 모릅니다. 그 나

날 우리 학급은 전원이 대학생과학탐구상수상자들로 자라났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홍성룡학장은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중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위성과학자주택지구를 비롯하여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기여한 학생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였다.

열띤 모습은 건축설계실에서도 볼수 있었다. 대학교원들은 학생들의 건축형성안을 지도하면서 자기들도 직접 대상건설을 말아 면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설계하고 있었다.

특히 건축설계강좌 교원 김봉환, 건축강좌 교원 리은광, 건축실내 및 가구설계학강좌 교원 로광명, 건축구조강좌 교원 리정훈을 비롯한 교원들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봉사건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여러 소조실, 원산육아원, 애육원의 실내형성안들을 훌륭히 완성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고 한다.



대학의 학생들도 건축형성안 창작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정말 설계실들은 크지 않아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바로 여기서 사회주의문명국의 래일이 척척 그려지고 있었다.

우리는 더 부강해질 조국의

글 본사기자 김솔미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새로운 형성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에서 창작한 건축형성안들의 일부

해박한 식견에 머리숙입니다



건축설계가로서의 내 나이도 이제는 일흔고개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나온 나날을 자주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나의 체취가 스민 건축물들과 함께 위대한 스승을 모시고 건축설계가로 살아온 궁지높은 한생이 떠올라 가슴뿌듯해 짐을 금할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건축예술에 대한 해박한 식견과 안목에 저절로 머리가 숙어지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체103(2014)년 5월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궁전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는데 대한 과업을 우리 평양도시설계연구소에 맡겨주시였습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설계를 맡은 우리모두의 가슴은 창작적 흥분으로 세차게 높뛰였습니다. 수십년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설계를 처음 맡아했던 나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나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개건설계를 훌륭히 하여 건축가

로서의 한생을 빛나게 장식할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나날은 우리로 하여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건축학적 실력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한 나날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건축추세와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러면서도 학생소년들의 지향에 맞게 외부형성과 내부형면설계를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가 만든 수백건에 달하는 형성안을 하나하나 다 보아주실 줄이야. 그이께서는 학생소년들의 편의부터 먼저 생각하시고 보건위생적이며 문화정서적인 환경과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며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던 것입니다.

정말이지 그때마다 우리는 그이께서 지니신 건축예술에 대한 비상한 조예와 해박한 식견 앞에 머리를 숙이였습니다.

건물의 건축형성뿐 아니라 컴퓨터소조실, 물리소조실이 있는 과학동과 수예소조실, 서예소조실, 가야금소조실, 손풍금소조실, 성악소조실이 있는 예능동, 궁전야외에 건설한 체육장과 자동차운전실습장, 합숙 등 건물의 외형으로부터 내부의 요소요소에 이르기까지 그이의 지도는 그 어디라 없이 어려여 있었습니다.

그이의 그렇듯 세심하고 정력적인 지도가 있어 우리는 매 건축물들, 매 요소들이 자기의

사명과 성격, 기능적 요구와 주변환경에 맞게 공간구성이 다양

하면서도 효율적일뿐 아니라 건축미학적으로 세련되고 정교한 설계를 완성 할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계를 앞서나갈 야심만만한 포부가 우리 설계가들속에서 부쩍 자라고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과 창조적 능력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참으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개건설계의 나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스승의 지도를 받으며 세계적인 대학을 새로 나온것과 같은 뜻깊은 나날이였으며 그이의 비범한 건축학적 실력과 비상한 령도실력에 대한 매혹과 흠토의 나날이였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면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고 주체적 건축미학사상의 요구가 철저히 반영되었으며 당의 후대관이 그대로 비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이라고 만족해 하시며 우리 설계가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마치 동화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온것만 같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복받은 학생소년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맑고 창창한 노래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합니다.

비범한 안목과 실력으로 세상을 굽어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로숙하고 세련된 건설의 영재이시며 그이를 모시여 조국의 모습은 세월을 앞당기며 더욱 밝아지고 사회주의 문명국의 상상봉에 오르리라고.

평양도시설계연구소로 역영웅 공훈설계가 고인수

선군과 민족의 존엄

혁명의 총대를 제일무기, 확고한 담보로 하여 혁명을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전진시켜나가는것이 조선의 리념이고 방식이다.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총대가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총대에 의하여 혁명이 개최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심오한 리치를 역사상 처음으로 친명한 사상이 바로 김일성-김정일주의이다.

그 당시가 선언되던 첫 기슭에서부터 장구한 혁명위업수행의 전행정에 선군의 위력으로 조선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여온것이 선군사상이다.

주체사상의 원리와 원칙, 요구를 혁명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지침으로 창시된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사적 투쟁속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어왔다.

돌이켜보면 조선혁명의 전행정은 선군으로 걸어온 길이였다.

항일혁명투쟁과 3년간에 걸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혁사는 조국이 선택한 선군의 길이 얼마나 정당한 길이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민족주의자들이 민족개량이나 외세의존, 국채보상이나 청원운동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루해보려고 할 때 조선의 혁명가들은 강도 일제와 피어린 무장투쟁을 벌려 기어이 승리를 이루하였다. 그들이 안아온 조국의 해방은 바로 총대에 기초한 무장투쟁만이 민족해방투쟁의 유일한 출로로 된다는 선군혁명의 원리에 바탕을 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의 열매였다.

1950년대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민족반역의 무리들이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침략의 불을 질렀을 때에도 조선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이길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영웅조선은 그 예상에 위대한 승리로 대답하였다. 승리의 7. 27은 명실공히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제국주의의 침략무력을 압도하는 강위력한 무기로 내세운 독창적인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의 승리였다.

선군조선은 두차례의 전쟁에서뿐 아니라 두차례의 복구건설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에서도 시종일관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대로 혁명군대의 위력과 역할에 의거하여 기적을 떨치고 변혁의 서사시를 엮어왔다.

더우기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주적인 근위병이 되느냐 아니면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하는 판가리결사전의 시기가 닥쳐왔을 때에도 천만군민은 선군의 기치따라 한사람같이 떨쳐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궤도를 따라 억세게 나아가는 조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오늘도 혁명군대가 단순한 무장집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혁명을 선도하고 창조와 건설의 기수로 활약해나가고있기에 조국에서는 자본주의가 흥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이 최대한 발양되고있으며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이 전면적으로 실현되고있다.

조국을 그 어떤 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위력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체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 혁명의 주체를 더욱 튼튼히 다진 것도, 지난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평양양로원,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평양메기공장 등이 일떠서거나 더욱 현대화되고 라선시에 희한한 선경이 펼쳐진것도 다 군대와 인민이 뭉친 일심단결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며 선군으로 빛나는 민족의 존엄이 얼마나 궁지높고 빛나는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이 모든 경이적인 사변들은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독창적인 선군혁명원리에 기초하여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는 선군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이 총폭발되고 약동하는 짙음으로 민족사의 최고번영기를 펼쳐나가는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기치는 의연히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힌 선군이다.

참으로 선군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빛나는 민족의 존엄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정당성 그 견인력과 불패의 위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춘엄한 봄

나는 로상에서 뜻밖에도 차광수를 만났다. 《덜렁 광창》의 눈은 도수높은 근시경밀에서 기쁨으로 반짝거리고 있었다. 나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멀리서부터 환성을 질렀다.

차광수는 나의 소식을 알고싶어 손정도목사네 집으로 가던 길이라고 하면서 나를 두팔로 안아들고 몇바퀴 빙그르르 돌아갔다.

그는 혁명을 하느라고 뛰여다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가니 고독해서 미칠것 같더라고 하면서 한참 동안 길림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성주, 조선의 로동운동은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하고있소. 투쟁구호, 투쟁방법, 투쟁양상... 모든게 새롭고 생신하거든. 30년대의 민족해방운동은 특히 투쟁양상에서 큰 변화를 보일것 같은데 어떻소? 이제는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우리 혁명이 새로운 가치를 들고 전진해야 하지 않을가?』

그는 피발이 선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혁명가의 리상은 고사하고 일신의 목숨조차 보존하기 어려웠던 살벌한 시기에 적의 공세에 위축되거나 겁을 집어먹지 않고 오히려 변복을 해가면서 동지들을 찾아다니며 공산주의자로서의 모색을 계속하고있는 그의 변함없는 모습에서 나는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우리 혁명이 새로운 가치를 들고 전진해야 하리라는 광수동무의 견해에는 나도 동감이요. 그런데 그 가치란 무엇이겠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옥중에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새형의 당을 창건해야겠다는 것과 무장투쟁에 이행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무장투쟁만이 나라를 구원할수 있고 민족의 해방을 가져올수 있소. 조선인민이 벌리는 모든 투쟁은 당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무장투쟁을 주축으로 하여 온 민족이 총동원되는 거족적인 항전으로 발전해야 하오.』

나는 옥중에서 내가 생각한것들을 그대로 토로하였다.

차광수는 내 말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신안툰에 가서 김혁, 박소심동무들과도 토론해보았는데 그들도 동감이라고 하였다. 무장을 잡지 않고서는 조선을 구원할수 없고 새로운 로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혁명을 전진시킬수 없다는것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였다.

무장투쟁은 조선의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제기되는 성숙된 요구였다. 일제의 파쑈적인 강권통치는 이 시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하였다. 조선민족의 무관리와 빙궁은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1929년부터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경제공황의 파도가 일본에도 미치였다. 일제는 대공황으로부터의 출로를 아세아대륙에 대한 침략에서 찾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적폭압과 수탈을 강화하였다.

일제가 조선민족에 대한 수탈과 억압에서 부국강병의 길을 찾았다면 우리 민족은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는데서 민족재생의 길을 찾았다. 경제투쟁일면으로 치우치던 로동운동과 농민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점차 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발전하기 시작한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나는 그때 신흥탄광 로동자들의 파업을 흥미있게 주시하였는데 그 파업도 종국적으로는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수백여명의 로동자들은 파업단의 지도밑에 탄광검탄소와 사무소, 기계실, 발전실, 공장장사택을 습격파괴하고 탄광구내의 전선을 모조리 절단하였으며 인양기와 뽑프를 비롯한 생산설비들을 닥치는대로 짓부셔버리였다. 탄광을 운영하던 일본사람들이 두달이 걸려야 탄광의 복구가 가능하다고 비명을 지를 정도로 파업로동자들은 회사측에 심대한 손실을 주었다.

폭동은 무장경판대의 개입으로 백수십명에 달하는 피검자를 내는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을 뒤흔들어놓았다.

이 폭동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기때문에 나는 후날 무장투쟁을 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신흥지구에 들어가 로동운동지도자들을 만나보았다.

조선로동계급의 투쟁은 조직력과 단결력, 지구성, 련대성의 측면에서도 종전의 운동에 비해 질적인 발전을 보이고있었다.

원산로동련합회에 망라된 2 000여명의 로동자들은 로련의 지도밑에 1만여명의 가족들과 함께 여러달이나 완강하게 파업을 단행하였다.

원산총파업소식에 접한 전국의 로동자, 농민들은 곳곳에서 격전, 격문, 동정금을 보냈으며 대표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홍원, 회령을 비롯한 국내의 로조단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원산에서 수천리 떨어진 길림에서도 우리가 조직한 반일로동조합산하의 한성회성원들이 원산로동련합회에 동정금을 모아 보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우리 나라로동계급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았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원산총파업은 1920년대 우리나라로동운동의 정점을 이룬 사변으로서 세계로동운동사상에 조선로동계급의 전투력과 혁명성을 뚜렷이 부각해놓았다.

나는 옥중에 있을 때 원산총파업의 전과정을 심중하게 주시하면서 그 투쟁이 우리나라로동운동력사에 특기할만한 투쟁이며 그들의 투쟁경험이 조선의 사회운동자들이 다같이 참고하고 따라배울만한 가치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였다.

만일 그때 간신히 로동련합회지도부가 취업지시를 내리지 않고 끝까지 파업을 밀고나갔거나 전국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이 파업에 호응하여 본격적인 실력투쟁을 벌리였더라면 원산로동계급의 투쟁은 승리로 결속되었을것이다.

나는 원산총파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조선에로동계급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하고 령도할수 있는 맙스-레닌주의당을 한시바삐 내와야 할필요성을 다시한번 절감하였으며 무장투쟁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축을 이루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중투쟁도 그 배경밑에서 더 치렬하게 벌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적이 철권을 가지고 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조건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은 불가피하게 폭력화의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수 없었다. 혁명적폭력이야말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의 반혁명적폭력을 타승할수 있는 가장 승산있는 투쟁수단이였다. 적이 총칼을 휘두르는 조건에서 조선민족도 자신을 무장하지 않을수 없었다. 무장에는 무장으로 맞서야 하였다.

교육, 문화, 경제의 진흥을 통한 순수한 『실력양성운동』이나 로농대중의 쟁의나 외교공작의 방법으로써는 나라의 독립을 이루할수 없었다. 원산총파업과 신흥탄광 탄부들의 폭동을 통하여 조선의 로동계급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비할바없이 두터워졌으며 그 과정에 나는 우리 나라로동계급이 훌륭한 로동계급이며 우리 민족이 참으로 전투적인 민족이라는것을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느끼였다.

문제는 로선이고 지도였다. 시대의 추이에 맞는 옳은 로선이 있고 옳바른 지도만 있으면 어떤 강적파도 싸워이길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이 생기였다. 파괴된 조직들을 시급히 복구정비하고 대중

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사업을 끊임없이 벌여 그들을 일본제국주의와의 결전에 하루속히 준비시켜야겠다는 조바심때문에 내 마음은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이러는 사이에 흘어졌던 동무들이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나한테 모여들었다.

나는 길림지구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반일로동조합, 농민동맹 핵심들과 마주앉아 적들의 백색테로가 강화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을 빨리 복구정비하고 군중을 끌어세우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차광수를 흥분시켰던 무장이라는 한마디의 말은 여기서도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지지가 나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우리는 간도와 조선의 북부국경일대에서 공청사업을 강화하며 이 지역을 신속히 혁명화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당창건준비사업을 실속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몇가지 사업을 토의한 다음 그 집행을 위하여 각지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였다.

나도 신안툰에서 하루밤 자고 인차 돈화를 향해 며났다.

내가 돈화를 공작지로 정한것은 거기가 동만 각현들과 련계를 짓기에 편리한 고장이고 또 그곳에 나를 도와줄만한 친지들이 있었기 때문이였다. 거기에 얼마동안 머무르면서 폭동이 세차게 번져가고있는 동만의 사태에 대처할 조직들의 활동방향을 제시해주고 옥중에서 무르익혀온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세울 작정이였다.

길림을 떠나면서 내가 제일 허전하게 생각한것은 어떻게 하나 중학만이라도 마치라고 한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지 못하는것이였다.

박일파는 나에게 자기가 아버지를 내세워 육문중학교 당국과 복교교섭을 할터이니 중학교를 마저 다니라고 권고하였다.

그는 길림에서 『동우』라는 잡지를 발간하고 있던 민족주의자 박기백의 아들이다. 박우천은 그의 필명이다.

내가 육문중학교를 다닐 때 박일파는 길림법정대학을 다니면서 류길학우회의 사업을 도와주었다. 그의 꿈은 법조계에 진출하는것이였다. 그 당시 그는 로어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백계로씨야장교를 따라다니였다. 그가 백파장교와 접촉하는것을 신생로씨야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처럼 여기고있던 우리 동무들은 나에게 그와의 거래를 끊으라고 권고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인민의 자주적 요구 실현을 제일목표로 내세우고

조선로동당의 70여년력사는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로서 그들의 자주적 요구 실현을 제일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한 역사이다.

인류력사에 정당정치가 출현한 때로부터 많은 당들이 인간해방을 표방하였으나 그 어느 당도 인민대중을 혁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당의 성격은 그당이 내세우고 있는 지도사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자기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인민대중의 자주성 실현을 당활동의 최종목적으로 내세우고 투쟁하고 있기에 조선로동당은 인민들로부터 어머니로 불리우고 있으며 인민들은 조선로동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조선로동당에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오늘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울리고 있는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들을 때면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 실현을 위해 조선로동당이 걸어온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주체34(1945)년 10월 10일은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는 진정한 혁명의 전위대, 전투적 참모부가 탄생한 날이였다. 이때부터 조선인민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손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적 존재로 될수

있었으며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 사대와 굴종의 땅에를 영원히 벗어던지고 참다운 생활을 창조해나갈수 있었다.

주체35(1946)년 3월 자기 땅을 가지고 싶어 하던 인민의 소원이 풀린 토지개혁과 8시간로동제 실시,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등 조선로동당이 령도한 모든 혁명들은 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시켜주는 것이였다.

준엄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자기 운명과 삶의 전부인 조국을 위해 군대와 인민이 하나가 되어 떨쳐나 무비의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100여년의 전쟁사상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고 으시대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보기좋게 꺾어버린것도,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사회주의건설시기 큰나라, 발전된 나라만 쳐다보는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세인을 놀래우는 천리마속도, 평양속도로 인민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며 사회주의 락원을 일떠세운것도 다 인민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지난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를 기화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사회주의 보루인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고 미쳐날뛸 때에도 인민은 오직 당을 믿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주저앉지 않았고 힘이 진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숨죽은 공장들을 돌리고 발전소들을 일떠세웠다.

더우기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더욱 힘차게 진행되었다.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의 자주적 요구 실현을 제일목표로 내세우시고 당이 작성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의 평가기준도 그들의 리익과 편의보장에 두도록 하

시였다.

하기에 주체71(1982)년 12월 어느날 자강도의 한 흑연광산에서는 인간사랑의 전설이 생겨나게 되었다.

장군님께서는 흑연전조로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얼굴에 흑연가루가 묻는 사실을 보고 받으시고 이 문제를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로, 로동자들의 건강과 작업조건에 무책임한 일군들의 태도로 엄중히 보시고 시급히 작업장조건을 일신하도록 하시고 일군들이 그곳로동계급앞에서 사죄하고 심판을 받도록 하시였다. 이 하나님의 사실을 통해서도 생산실적이나 리익보다도 인간을 먼저 중시하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잘 알수 있다.

하기에 지난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의 붕괴를 기화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사회주의 보루인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고 미쳐날뛸 때에도 인민은 오직 당을 믿고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주저앉지 않았고 힘이 진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숨죽은 공장들을 돌리고 발전소들을 일떠세웠다.

70여년간에 걸치는 조선로동당의 령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길이였으며 조선로동당은 곧 인민대중자신이였다. 그러기에 인민은 당을 따라 불바다를 헤치며 기적을 창조하였고 자기 운명의 전부인 조선로동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산림 조성사업의 확고한 전망

- 국토환경보호성 국장 강현과 본사기자의 문답 -

기자 : 오늘 조국에서는 가까운 몇해안으로 온 나라를 푸른 숲 우거지게 하기 위한 산림복구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식수절이 하루하루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였다.

먼저 지난해에 산림조성을 위한 사업에서 어떤 성과들이 이루어되었는가.

국장 : 산림조성사업은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따라서 푸른 숲 우거진 조국산천의 래일을 위하여서는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를 정성다해 심고 가꾸어야 한다.

지난해에 온 나라의 군대와 인민은 나무심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나무를 그저 심는것이 아니라 구뎅이를 규격대로 파고 나무모를 심은 다음 물을 주고 뿌리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흙을 꽁꽁 다져주는 등 나무심기에서 나서는 요구를 책임적으로 지켜나갔으며 나무를 심은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비료와 물을 주고 벌침대도 세워주며 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17만여정보에 수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는데 그 사름률은 종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기자 : 산림조성에서 중요한 문제는 나무모라고 생각한다. 나무모확보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국장 : 산림조성을 원만히 하

자면 나무모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양묘장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봄과 가을철에만 식수를 하던 종전의 방법에서 벗어나 사철 나무를 심자고 해도 그렇고 나무의 사름률을 결정적으로 높이자고 해도 양묘장을 현대화, 과학화하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되게 꾸려야 한다.

먼저 지난해에 산림조성을 위한 사업에서 어떤 성과들이 이루어되었는가.

국장 : 종자처리, 삭퇴우기, 영양관리, 생태환경보장, 병해충구제, 저장 등에 이르는 모든 나무모생산공정들을 고도로 현대화하여 적은 생산면적과 노력으로 높은 생산면적과 품질을 가지고 한해에 수천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는 토지 절약형, 로력 절약형 양묘장으로 꾸려야 하는 실정에 맞게 지금 조선인민군 122호 양묘장과 중앙양묘장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양묘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양묘장들은 나라의 산림과학을 주도할수 있는 중요한 과학기술보급거점,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정확한 인식과 표상을 주게 될것이다.

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것과 함께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를 충분히 마련하고 양묘장의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기자 :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는 문제 또한 산림조성의 확고한 전망을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지 않는가.

국장 : 그렇다. 지금 조국인민들은 산림조성사업을 자기 자신의 사업으로 여기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그들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뿌리촉진제들을 이용하여 나무를 과학적으로, 질적으로 심고 있으며 심은 나무에 대한 가물피해와 얼굴피해를 방지하고 그 비배관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성에서는 매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매 사람에 따르는 책임제를 실시하여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를 따지기 전에 몇그루를 살렸는가를 따져 누구나 자기가 심은 나무의 주인으로 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이 훨씬 높아진것은 바로 여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기자 : 나무심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국장 : 우리는 이미 창성이 깔았나무, 잣나무, 세일소나무, 아카시아나무, 평양단풍나무, 평양뽀뽀나무 등 수종별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면적에 나무심기계획을 면밀히 세워놓고 있으며 이미 올해에 심을 나무모들을 확보해놓았다. 각 도와 시, 군들에 있는 양묘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사업이 선행되고 자기가 심은 나무는 자기가 책임지는 인민들의 자각적이며 주인다운 립장과 양양된 열의가 있어 산림조성사업의 전망은 확고하다.

* * *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면서 -

더 많은 어린이식료품 생산을 위하여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일신하였다. 생산되는 제품 또한 이전과는 달리 그 질이 높아졌다. 실지 공장은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데 맞게 제품의 질적 및 양적장성을 위해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기사장 차성철은 말하였다.

『지금 세계적인 어린이식료품생산의 발전추세는 모든 어린이식료품들을 어머니젖과 꽃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식료품의 맛을 가지고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지난해 공장을 우리 식대로 현대화하였습니다. 지금 공장은 과학기술을 생산장

성의 기본고리로 틀어쥐고 나가고 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바와 같이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을 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어느 직장에서나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 가신 공장의 여려곳을 돌아보았다. 기사장의 안내



를 받으며 우리는 제품결본실과 과학기술보급실에 이어 통합생산지령실에 들렸다. 공정관리와 공정분석, 동력관리, 품질관리, 생산조직과 생산일보, 무균무진 등 생산체계와 설비들에 대한 실시간감시자료가 영상감시체계를 통하여 펼쳐지고 있었다.

『우리는 지난해 우리의 힘과 기술, 지혜로 공장의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였습니다. 기자동무들도 보시다실이 우리는 지난 시기 다른 단위들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생산과 경영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최량화, 최적화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해놓았습니다.』라는 기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콩우유생산직장과 공신젖직장, 애기젖가루직장과 영양암가루직장 등을 돌아보았다.

무인화,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된 일터여서로 동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도 생산되어 나오는 콩우유, 공신젖, 애기젖가루 등 제품들의 질과 그 생산량은 매우 높았다. 공장의 설비들도 조국의 기술자, 노동계급이 국내산

자재로 만든것이여서 민족적 자부심에 가슴이 흐뭇해졌다.

콩우유생산직장 영양암가루작업반 기대앞에서 우리와 만난 기술원 김윤경은 말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대로 더 맛좋고 질좋은 어린이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보내주어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그대로 모든 아이들에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식료품의 맛을 가지고 세계와 꼭 경쟁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장종업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안팎으로 멋쟁이공장,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된 공장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공장제품을 받아안고 기쁨의 웃음을 지을 온 나라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생산된 제품은 어린이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글 본사기자 정 린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혁신의 물바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중요대상들에 필요한 발전설비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켜나가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생산적성파로 맞이하자는것이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양양된 열의이다.

지난해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대상설비를 원만히 생산보장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11월에는 불파 보름동안에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원추판과 굽은판들을 성파적으로 제작보장하는 혁신을 창조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다.

지금 이곳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올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들고 각지에 건설되는 수력발전소들에 필요한 발전설비제작을 주타격대상의 하나로 정하고 력량을 집중하여 성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그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자재를 앞질러가

며 보장하는 한편 생산공정간련계를 긴밀히 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도 실속있게 짜고들고 있다.

기업소의 관심속에 생산단위들에서 맡은 과제를 자기의 힘으로 최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한 혁신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대상설비제관직장에서 집채같은 원추판들과 굽은판들을 빠른 기간에 제작완성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가 하면 치차감속직장에서는 멎어있던 설비를 단 며칠만에 살려내고 대치차가공도 계획보다 앞당겨 진행하고있다.

치차감속직장의 타닝작업반에서는 낮에 밤을 이어가며 한사람이 두몫, 세몫씩의 일감을 맡아 수행하는 혁신적인 투쟁기풍이 발휘되고있으며 보수작업반원들은 철판가공설비의 전동기수리를 제때에 해제끼는 등 제관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고리에 힘을 넣어 현장의 숨결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밤낮없이 전투를 벌리는 치절작업반원들은 화력발전소보수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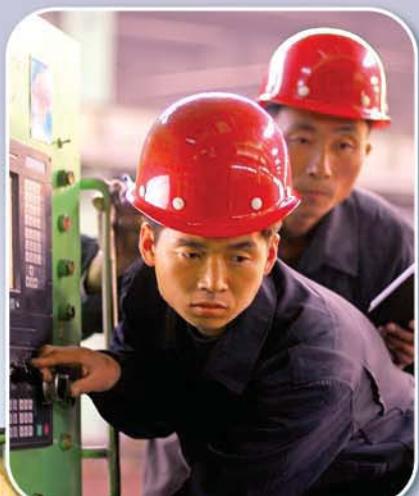
비부분품들의 가공을 보통때의 2.5배로 높이고있다.

직장의 숨결이자 협력기업소안의 모든 생산단위들에 높뛰는 혁신의 기상이고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을 열어나가는 조국의 약동하는 현실이다.

협력기업소일군 리찬식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하여 생산자재들이 들어오는쪽쪽 제작전투를 벌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겠나.』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온두 우리의 것인데 정말 좋습니다》

창광상점은 조국인민들이 즐겨 찾는 상업봉사 기지이다.

주체72(1983)년 11월에 봉사를 시작한 때로 부터 수십년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온 창광상점은 지난해 미래과학자거리와 함께 새로 건설되었다.

상점은 연 건축면적이 7 200여 m²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있다. 상점에는 상품보관과 판매,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는 봉사시설들이 그흔히 갖추어져있다. 그리고 수직승강기와 계단승강기가 설치되어있으며 아동놀이터, 청량음료점 등도 손색없이 꾸려져있고 실내온도보장을 위해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도 구축되어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때로부터 지금까지 창광상점으로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갖가지 상품들을 사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창광상점의 봉사자들은 20여개 매장들에 질

좋고 값싸은 600여 가지 국내산상품들을 가득 쌓아놓고 손님들에 대한 봉사를 친절하게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는 총장 한팡옥과 함께 상점을 돌아보았다.

여기저기에서 웃음에 넘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수제제품매대에 갔을 때였다.

평천구역 간성동 1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장명호녀성이 함께 온 여성에게 이제는 다음 매장으로 가자고 이끌었지만 그는 좀처럼 발길을 떼지 못하고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몇해전 저는 중구역 창광동에 자리잡고있던 창광상점에서 12L짜리 바깨쓰를 산적이 있습니다. 질이 좋아 지금도 쓰고있지만 새로 선 창광상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새 바깨쓰를 보니 욕심이 생겨 이렇게 또 두개나 샀습니다. 상점의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지 발걸음을 옮길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는 공구, 문화용품, 전기용품매장들에서도 울려나왔다.

경질그릇들을 아름이 넘치게 사안은 중구역 연화1동에서 살고있는 김영미녀성은 『창광상점에서 팔아주는 상품들은 모두 우리의것이고 질도 좋고 값도 녹어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하며 얼굴에서 미소를 감출줄 몰랐다.

아동놀이터에서 미끄럼대를 타기도 하고 보기에도 깜찍한 그네를 타는 어린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어머니, 할머니들의 모습 또한 이채로웠다.

상점안에 넘쳐나는 사람들의 기쁨에 넘친 모습에는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체취가 그대로 어려있었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더 잘 받들어갈 수 있도록 미래과학자거리에 본래보다 두배나 더 크면서도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철저히 구현된 현대적인 상점건물을 세워주시였으며 개업을 앞둔 때에는 상점에 찾아오시여 상품을 떨구지 않고 보장하는 문제, 봉사활동의 친절성과 편리성, 문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품진렬방법도 끊임없이 개선되여가고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대로 상점에서는 상품을 떨구지 않고 보장하고 있었으며 봉사활동의 친

절성과 편리성, 문화성이 보장되고 상품진렬방법도 끊임없이 개선되여가고 있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된 충복답게 앞으로도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 상점에 질좋은 갖가지 상품들을 가득 채워놓고 인민들이 마음껏 상품을 사가게 함으로써 창광상점이 흥하는 상점, 사회주의상점으로 되게 하겠다.》는 지배인 백영숙의 말을 뒤에 남기고 상점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수 기

땅의 주인이 되여 흘러보낸 나날을 더듬어

농장을 찾아오시여 농사형편을 수시로 알아보시며 농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나는 수령님들의 교시대로 열심히 일하였다.

그 나날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한 나날이기도 하였다.

서로 돋고 이끌면서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게 하는 분조관리제는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여 주고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하였다.

하여 우리 농장은 매해 남새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였으며 지금도 그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다.

오늘 우리 농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사회주의농촌문화건설의 본보기로 일떠섰다.

하기에 지난해 6월말 우리 농장을 찾아주시었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지개벽된 농장을 보니 한폭의 그림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정말 절세위인들의 손길이 있어 우리 농민들은 땅의 주인으로, 도시부럽지 않은 농장도시의 주인으로 될 수 있었다.

하기에 우리 농장을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농장원들이 정말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농장원들 모두 이렇게 말한다.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우리 농장이 빛나고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린다고.

평양시 사동구역 장진남새전문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로력영웅
김명연

이제 얼마 안 있어 토지개혁법령 발포[주체35(1946)년 3월 5일] 70돐을 맞이하게 된다.

조상대대로 땅의 주인으로 자주적인 삶을 누리고 싶어 하던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이력사의 날이 오면 나는 저도모르게 지나온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군 한다.

분여받은 땅을 쓸어보며 기쁨에 울던 농민들, 매일과 같이 팽파리소리, 새납소리, 장고소리가 그칠 줄 모르던 마을과 포전들…

물론 내 자신이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던 그해에 태여난지라 당시를 체험해보진 못했어도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와 기록영화를 통해 너무도 많이 듣고 보아왔다.

해방전 뼈빠지게 땅을 가꾸어도 송곳박을 제땅 한뼘 기조차 없었던 농민들, 이들의 세기적 숙망은 제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였다.

바로 그 간절한 소망을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시고 남먼저 풀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해방후 민주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토지개혁을 선착적인 파업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실정에 맞게 토지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폼소 평안남도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지방

그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 차례나 우리

녀성연구사의 사색과 탐구의 원천



조수경

오늘 조국의 여성들은 사회와 가정의 꽃으로만 아니라 과학기술로 조국을 반드시 꽂으로 피여나고 있다. 그런 여성들 속에는 평양기계종합대학 자원개발기계공학부 수산기계강좌 연구사 박사 공훈과학자 조수경(44살)도 있다.

평양양말공장현대화를 비롯하여 경공업부문에서 절실한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 조수경을 만나보고 싶어 얼마나 우리는 평양기계종합대학을 찾았다.

강좌에 찾아가니 그는 강의 중이었다.

우리와 만난 강좌장은 《우리 수경선생은 정열가입니다. 이제 만나보면 알겠지만 여성의 몸으로 과학연구사업과 교수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남자교원들도 탄복하군 합니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사무실로 이끌었다.

조수경이 평양기계종합대학

자원개발기계공학부 수산기계학과를 졸업하고 교단에 선 것은 지금으로부터 19년전인 주체 86(1997)년이었다. 그가 대학 연구진에 망라되어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 수압식물고기가공기계였다. 그때 강좌장은 처음으로 연구진에 망라된 제자에게 어렵고 힘든 부문의 설계와 제작을 맡겼었다. 조수경은 설계와 제작을 끌끌내 자기 손으로 완성하였는데 얼마나 이악한지 기계가 완성되어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야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급양부문에서 거의 손로동에 의거하던 물고기가공을 자동화하여 여러 봉사부문에 도입한 결과 물고기식료품생산에서 무균화를 실현하고 식료품의 질도 개선하게 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평양양말공장의 포장공정설비를 연구제작할 때에도 그는 퇴근시간이면 연구조성원들의 등을 떠밀어 집으로 보내면서도 자기는 현장을 뜨지 않고 연

구제작한 설비의 시운전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한시바삐 조수경을 만나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게 하였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조수경과 마주쳤을 수 있었다.

우리와 만난 그는 자기는 크게 해놓은 일이 없다며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무엇을 연구하였다면 그것은 우리 여성들을 아끼고 내세워주는 고마운 조국의 사랑이 여성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양양말공장 포장공정설비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공장에 있는 여성들이 생산공정은 위대한 장군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여성들에게 양말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마련해주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도 몸소 양말공장에 나오시어 우리 여성들이 신계 될 양말 한켤레, 한켤레를 쓸어보시며 얼마나 기뻐

교육사업에 힘을 넣는다.



하시였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만든 포장공정설비를 보아주시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주시던 장군님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달후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며 그에 대한 교시를 또다시 하시였다고 한다. 그이께서는 평양기계대학(당시) 연구사가 정말 용탁

고, 기특하다고 하시며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새겨진 시계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1년이 지난 주체 100(2011)년 10월에는 자신의 존함이 새겨진 금반지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인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기 위해 바친 그의 사색과 탐구는 마침내 양말포장이 조국인민들과 여성들의 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



상식

수박희와 태권도

조선인민은 오랜 옛날부터 무술을 즐기여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무예를 장려하던 고구려시기에 수박희라는 무술이 발생하여 발전하였다.

수박희는 맨손으로 상대방을 치거나 때리며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 손치기놀이이다.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시기부터 널리 보급되어온 수박희는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를 포함하여 중세 전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박희는 기본이 상대편을 쳐서 넘어뜨리는 운동인 것만큼 상대방의

호와 감정에 맞게 완비될 수 있게 되었다.

탐구의 그 열매는 주체 101(2012)년 7월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 그는 박사학위와 공훈과학자의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미래과학자거리의 새 집까지 받아안았다.

인민생활을 위해 조금이라도 이바지한 과학자라면 이렇듯 따뜻이 품어주고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기에 과학의 보물고는 나날이 커가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조국의 걸음은 그만큼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그는 새로운 연구과제를 받아안고 인민경제 여러분으로 끝없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글 분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로 하는 민족격술이다.

태권도는 기본동작, 틀, 맞서기, 호신술, 위력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본동작은 경기실천에서 적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동작으로서 그 가지수는 무려 3 200여종이나 된다.

태권도는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위력한 무술종목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조선민족의 억센 기상과 넓이 깃들어있는 태권도는 민족의 자랑이며 귀중한 문화재부이다.

* * *



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찾아

위인의 옛 모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1동에는 창덕학교가 있다. 학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소년시절에 공부하신 것으로 하여 유명하다.

얼마전 우리는 창덕학교를 찾았다.

우리와 만난 학교일군 황미숙은 말하였다.

『우리 학교는 위대한 수령님의 외할아버님이신 강돈육선생님께서 일제의 군사적 통치 밑에서 신음하던 청소년들에게 조선의 정신과 애국사상을 심어주려고 뜻있는 사람들의 지원 밑에 1907년에 세우신 사립학교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

12(1923)년 4월부터 주체 14(1925)년 1월까지 이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 창덕학교에서 공부하시게 된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이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까지 그이께서는 중국의 팔도구에 계시였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소학교과정을 마친 그이께 아버님이신 김형직 선생님께서는 <조선에서 태여난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며 조국에서 공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되여 그이께서 팔도구



에서 만경대까지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시였으며 만경대에 오신 후 칠골외가에 계시면서 창덕학교 5학년에 편입하시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이께서 공부하신 옛교사를 돌아보았다. 교사주변에는 사적건물관리에 열중하는 학생들로 하여 활기를 띠고 있었다.

우리와 만난 1학년 3반 학생 리국정은 학교에는 학창시절의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이 모셔져있고 그이께서 공부하시던 당시의 학교건물이 사적건물로 정중히 보존되어있다고, 자기들은 이 뜻깊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궁지를 안고 수령님께서 걸으신 배움의 천리길 답사도 하고 또 그이께서 창덕학교시절 애국심을 키우신 곳들도 돌아보며 조선을 위하여 더 열심히 공부해갈 열의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 교사로 향하였다.

교사에는 현대적인 교실들, 각종 실험실습실, 도서관, 수영관, 체육관 그리고 편의봉사시설들과 수재교육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져있었다.

이곳 교원들의 말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제때에 정확히 찾아내고 교육대상을 정한 다음에는 기초교육을 폭넓고 깊이있게 주는데 선차적 힘을 넣는 한편 조기교육, 속성교육 등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적용



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이 최대한 빨리 원만히 자라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2학년 10반 학생 남수정은 말하였다.

『학교에 입학하여 저는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외국어수재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입학 당시만 하여도 나에게 남다른 외국어 소질이 있다고는 생각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저의 소질을 찾아내어 키워주었습니다.』

그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자기 학교를 제일 먼저 찾아주시고 학교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시기 창덕학교를 현지지도하시면서 학생들이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기풍을 세워나갈것을 당부하신데 대하여 이야기하며 항상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를 가슴에 새기고 학습에 열중한다고 하는것이였다.

남수정은 수학과 물리를 비롯하여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였으며 특히 제1차 전국제1중학교 외국어 회화경연에서 학교가 1등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3학년 8반 학생 차영희 역시 다를바 없었다.

학생은 지금까지 매 학년을 최우등으로 빛내였으며 얼마전에는 7. 15최우등상수상자가 되였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도 공부를 더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모교를 빛내일뿐만 아니라 조국을 빛내이는 참된 일군이 되겠다고 결의하였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언제나 조국을 마음에 안고



박승남

지난해 11월 3일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림상제2의학부 병리학강좌 강좌장 박승남이 제일 잊지 못하는 날들중의 하루이다.

그날 그는 새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준공식에 참가하여 군대와 사회의 건설자들, 과학자들과 함께 준공토프를 끊은것은 물론 미래동 70인민반 5층 1호집의 열쇠도 받았다.

집열쇠를 받아쥔 그의 눈가는 축축히 젖어들었다.

일본에서 흘려온 나날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던것이다.

일곱남매나 되는 자식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돼지를 키워 팔던 그의 부모는 엄청난 학비로 다른 자식들은 다 공부시키지 못해도 맏이만은 공부시켜야 한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였다.

둘째아들이었던 승남도 여기저기에서 삶일을 하며 형의 학

비보장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면서도 승남은 의학공부를 하는 형이 부러워 형이 보던 책을 남몰래 펼쳐보군 하였다. 그럴수록 의사가 되고싶은 꿈은 커만갔다. 하건만 그는 부모에게 자기 희망에 대하여 말할수 없었다. 그것은 그자체가 부모의 어깨우에 무거운 짐을 또 하나 올려놓는것이였기때문이였다.

승남의 그 이룰수 없는 희망, 꿈은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실현되었다.

조국에서는 17살에 혼자의 몸으로 귀국한 그가 그처럼 희망하는 의학공부를 마음껏 할수 있도록 남포의학전문학교(당시)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치도록 해주었다. 생물에 남다른 취미가 있어서인지 그는 병리학을 매우 사랑하였다. 병의 기능형태변화를 정확히 알아야 그에 맞게 치료를 따라세울수 있다는것이 그의 주장이다.

승남은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생화학 등의 학문들을 치심스레 연구하였다. 그는 수업만 끝나면 의례히 대학도서관에 가서 병리학을 파고들었으며 병리학 연구실에 가서 표본관찰도 진행하였

다. 그의 학구적인 태도는 대학교원들과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다.

엄격한 교원들도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박승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안해 오신정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래학년에서 공부하던 저는 언제나 교원들의 칭찬을 받고 대학속보판을 독차지하던 남편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정열가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병리학에서도 일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열정적인 그 모습에 반했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승남은 신정과 가정을 이룬 후 대학박사원에서 공부하던 나날에 콩팥염에 대한 진단에서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결과 치료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낮과 밤이 따로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없이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마침내 그는 론문 《원발성사구체콩팥염》에 대하여 쓰게 되였다. 콩팥염진단에서 난문제로 되고있던 발병진단을 과학적으로 밝힌 그의 론문은 발표되자마자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론문에 대한 박사론문심의가 진행되는 장소에 조국을

방문한 그의 아버지도 참가하였다. 그는 아들의 론문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였다.

한것은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으로 혼자 귀국한 아들이 과연 어떻게 살가 하는 걱정이 가슴 한구석에 걸려있었는데 앞에 나타난 아들의 모습은 너무도 대견하였다던것이다.

하기에 론문심의가 끝나자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부여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어머니도 꽃피워주지 못한 꿈을 조국이 실현시켜주었구나. 조국의 품은 정말 따뜻한 어머니품이다. 이 조국에 고

그에게는 아들과 두 딸이 있다.

상식

정신적스트레스를 미리 막으면

① 아무리 간단한 사물에 대해서도 열정과 취미를 가져야 한다.

② 병이 날가봐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③ 자기 사업을 열렬히 사랑해야 하며 여기에서 기쁨을 맛보아야 한다.

④ 많은 벗들과 사귀며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해야 한

다.

⑤ 집안과 집밖에서 레저있게 사람들을 대하고 활기있게 말하며 불필요한 알룩을 피해야 한다.

⑥ 일처리에서 우유부단하지 말아야 한다.

⑦ 시간을 짜내여 책읽는 습관을 붙여야 한다.

* * *



즐거운 저녁

마음의 인사를 드려라.』

승남은 그후 《병리학》, 《병리학총론참고서》를 비롯한 교재들을 수많이 집필하였으며 석사, 박사들도 많이 키워냈다.

병리학강좌 강좌장인 그는 주체81(1992)년에 박사학위를, 주체87(1998)년에는 인민과학자의 칭호와 교수의 학직을 받았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후보원사로 되였다.

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대회들에 그를 불러주었으며 일흔번째 생일을 맞을 때에는 생일상도 보내주었다.

그에게는 아들과 두 딸이 있

는데 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과 박사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쟁쟁한 실력가들이다.

조국의 텔레비죤은 그의 가정을 《자랑많은 의학자가정》이라고 널리 소개하였다.

승남은 세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한다.

『사랑에는 보답이 따라야 하거늘 이 어머니조국을 위해 있는 힘과 지혜를 깡그리 바쳐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이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첫째도 둘째도 먼저 생각하여야 할것이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천남마을 주인들의 사랑

얼마전 우리는 중국의 흑룡강성에서 살고있는 고인호동포의 고향인 평양시 형제산구역 천남남새전문협동농장을 찾았다.

아직 눈덮인 계절이지만 농장은 벌써부터 농사 차비로 들끓고 있었다. 더운 김이 물물 나는 거름을 포전에 내는 그속에 농장마을의 모습이 안겨 왔다. 푸른색기와를 엿은 아담한 살림집들과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지은 탁아소와 유치원, 진료소와 군민원이 들어앉은 농장마을은 한폭의 그림 같았다.

마을에서 울리는 아이들의 랑랑한 노래소리에 끌려 우리가 먼저 들린 곳은 천남남새전문협동농장 농산2작업반 탁아소였다. 창문마다 비쳐드는 따스한 해빛에 아담하고 정갈하게 꾸려진 탁아소안이 한결 더 환해보였다.

풍금앞에 모여 노래부르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한쪽에서 조각그림맞추기와 지능놀이에 여념이 없는 어린이들에게로 다가갔다. 《소년장수》, 《호동왕자와 라랑공주》 등의 조각그림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들의 그림조각인것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심리에 꼭 맞았다. 서로 승벽내기로 그림들을 맞추는 귀여운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탁아소소장은 이 그림과 지능놀이감들이 어린이들의 사고를 발달시켜주는데서 큰 은을 낸다고 하였다.

어린이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뒤에 남기고 우리는 농장살림집을 찾았다. 마을의 첫 입구에

있는 《천남리 33인민반 주재규》라고 쓴 문패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집에 들어서니 주재규로인이 우리를 반겨맞아주었다.

뜨락에 들어선 우리에게 로인은 마당에 놓여 있는 탕크에 대한 자랑부터 하였다.

『이것이 메탄가스탕크인데 우리는 집집마다에서 나오는 집집승배설물과 벼짚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뗄감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뗄감문제를 해결하고 저렇게 태양빛전지판까지 설치하여놓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소.』

집안에는 살림방들과 세면장, 위생실, 부엌에 창고까지 달려있었다.

『이 천남리에 태를 물은 내가 이젠 예순을 넘겼수다.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나라의 혜택속에 우리 살림은 나날이 늘어만 간다오. 그런데 또 이렇게 살림살이에 아무런 불편없는 새 집까지 받고보니 정말 생각이 깊어만지오. 이 좋은 세월을 마련해준 나라를 위해 농사를 더 잘 지을 생각뿐이오.』라고 말하는 주재규로인의 얼굴에는



행복의 웃음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마을을 돌아보던 우리는 해빛을 받아 번쩍이는 한 건물을 보게 되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던 기사장 차명동은 그 건물이 새로 개건한 우렁이 서식장이라고, 그옆에 있는 것은 1 000m짜리 버섯재배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의 해방과 토지개혁의 덕으로 우리 농민들이 나라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되여 누리고 있는 생활을 놓고 지난날과 대비해볼 때 정말 하늘과 땅차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해있을수 없습니다. 수도시민들의 남새보장과 알곡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우리 농장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처럼 꾸리자면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의 말대로 농장원들은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강의를 받고있는 농장원들



원격교육체계를 통하여 과학지식을 습득하고 토양분석실, 병해충검정실에서는 토양을 분석하고 병해충피해방지대책도 세우고있었다. 그들의 모습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는 올해에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올해농사를 더 잘 지으려는 열의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어느덧 하루해가 저물어 저녁노을이 비쳤다. 붉은 저녁노을속에 잠긴 천남리의 모습은 볼수록 더욱 아름다웠다.

우리는 자기 고향과 마을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고장사람들에 위하여 더욱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될 천남리를 그려보며 또 머나먼 이역땅에서 변모된 고향과 마을을 그려볼 동포들을 생각하며 다음 취재지로 향하였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농장에 꾸려진 병해충검정실에서





중국 길립성 장백현 연광촌 김동관외사촌동생 앞

보고싶은 동생을 그리며

보고싶은 동생, 그동안 잘 있는지.
동훈, 동숙, 동춘동생들과 그리고 자네의 가족들도 모두 건강한 몸으로 지내고있겠지.

몇해전에 동생이 조국에 오겠다는 소식을 보내온 이후로는 소식이 없어 이렇게 편을 들었네.

이제는 나도 60고개를 훨씬 넘기고보니 혈육들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구만. 더욱기 저 멀리 타향에 있는 동생들과 조카들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이룰 때가 많네. 참 나이가 들면들수록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지는가 보네.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이 있네. 우리가 중국에서 소꿉시절을 보내던 때에 자네가 너무 장난이 세차 물동이를 깨먹고 삼촌어머니를 울리던 일이며 어머니의 욕이 무서워 몰래 연광촌 뒤산에 올라 해바라기씨를 닦아먹으며 집에도 못들어가던 일이 아직도 생생히 안겨오네. 정말 그때가 어제런듯 싶은데 벌써 수십년세월이 흘렀구만.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더니 정말 그런것 같소.

그 기간 나도 그렇지만 우리 가족도 많이 달라졌네.

동생들과 헤여져 조국에 온 나는 소학교와 중학교과정을 마치고 함흥약학대학에서 공부하였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평양에 있는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 연구사로 있다가 의학과학원 일군으로 사업하였다.

정말 그 나날 중국에서 살다가 온 나에게 베풀어진 나라의 은덕이 얼마나 크고 세심한지 아마 동생은 다는 이해할수 없을거네. 이제는 나아가 많아 집에 들어왔지만 지금도 의학과학원 일군들은 나를 혁명선배로 존대하며 내 생활을 각근히 돌봐주고있는데 그럴 때면 얼마나 가슴후더워지는지 모르겠네.

동생, 난 이런 훌륭한 제도에서 또 좋은 사람들속에서 한생을 보내고있네.

우리 집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제는 가정을 이룬지도 30여년이 흘렀네. 난 마음씨고운 최정숙이라는 녀성과 결혼하여 두 딸과 아들 하나를 보았네. 맏딸은 렴정미인데 이제는 출가하여 5살난 딸애 어머니가 되었지. 그리고 둘째딸인 정아도 출가했는데 아직은 자식이 없네. 아들 정광은 지금 군사복무를 하고있는데 얼마전 그 애가 보내온 편지를 보니 인차 대학추천을 받고 온다는구만.

이렇게 자식들의 일이 다 잘되니 더 바랄것이 뭐가 있겠나. 그저 나나 우리 로친은 고마운 조국의 은정에 보답할 마음뿐이네.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비록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아무런 근심걱정없는 생활을 나라에서 마련해주고있기에 우리 가정의 오늘들이 있는것이 아니겠나.

동생, 정말이지 집안에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국땅에 있는 동생을 비롯한 그곳 혈육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모여앉아 어울린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뿐이네.

지금 내 생각같아서는 앞으로 뜻깊은 명절날들이 많은데 그때 동생내외랑 조카들이 함께 와서 회포를 나누었으면 하네.

동생, 동생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꼭 오라구. 그리고 편지도 자주 하고.

그럼 상봉의 그날까지 동생들과 가족들이 품성히 잘 있기를 바라네.

평양시 대동강구역 탑제1동 62인민반
령철호형으로부터

—인상기—



걱정이 아니라 신심을

정교하고 깨끗하게 꾸려진 항공역사에 친절하고 상냥한 안내원들의 모습까지 비껴드니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였다.

평양방문의 나날에 차를 타고 가며 새로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 를 보게 되였는데 너무도 웅장화려하여 짐작이 세차게 높뛰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조선민족의 력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평양민속공원은 또 얼마나 웅장한지 한마디로 말하기는 너무도 어렵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장에도 가보았는데 위인칭송의 꽃들은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가 사는 곳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있지만 불멸의 꽃 김일성화, 김정일화처럼 아름다운 꽃

은 없다.

어떻게 꽃을 이렇게 가꾸었는가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그리며 가정들과 직장들에서 정성을 다해가며 키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사람들, 건물들, 모든것이 내가 이미 전에 듣던바와는 너무도 판이한 고국의 현실이였다.

이 모든것은 나에게 걱정이 아니라 보다 휘황찬란해질 래일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새겨주었다.

나는 싼크뜨-뻬쩨르부르그민족자치회 부회장으로서 우리 동포들이 고국의 문화와 력사, 전통을 더 잘 알도록 노력해나가겠다.

재로씨야 리 잔나

내가 느낀 모든것을

조국에 이런 말이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부정하고싶다.

한것은 몇년만에 조국을 방문한 나의 시야에 비껴든 모든것들이 정말로 놀라웠기때문이다.

조국은 10년이 아니라 매일매 시각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고있다.

새로운 거리들,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건축물들… 그중에서도 문수물놀이장, 룽라곱등어 판은 나의 놀라움을 더욱 자아냈다.

물론 일본에서 《조선신보》를 통해 나는 문수물놀이장의 규모라든가 내부시설에 대하여 알

고있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너무도 웅장하고 멋이 있어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분위기는 또 얼마나 좋은지 절로 마음이 즐거워졌다. 자식을 데리고 오지 못한 아쉬움도 생겨났다.

아쉬움은 문수물놀이장에서 만 생긴것이 아니였다. 바다에 있는듯 한 느낌을 주는 룽라곱 등어판에서도 나는 혼자 웃음을 보

수갈채를 보내였다.

이외에도 나는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그럴수록 내가 느낀 모든것을 동포들에게 실감있게 이야기해주어 그들이 조국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일해나가도록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굳어진다.

재일동포 현봉렬



조국과 함께 25년



더 많은 동포들을 둑어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총련합회의 일군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창립이 선포된 때로부터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조국과 함께 기쁨과 행복,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보내온 25년을 돌이켜보는 동포들의 가슴에 깊은 감회가 어려있다.

이역땅에서 조국을 그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담을 길이 없어 그리도 마음씨오던 그들이였다. 그런 그들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헤아려주는 조직이 생기었으니 그날은 경사중에서도 제일 큰 경사였고 기쁨중에서도 제일 큰 기쁨이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대련시 지부장 황정숙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체80(1991)년 3월 3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심양으로 갔습니다.

조국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중국땅 여기저기에서 살고있는 동포들이 다 모여왔는데 온 회의장을 꽉 채웠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조직된다는 이 한마디의 말에 모두가 눈물을 머금고 손바닥이 아프도록 박수를 치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동포들의 눈앞에는 조국에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제나름대로의 활동을 벌려나가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떠나온 조국을 잊지 않겠다며 저마다 학습조를 뜻던 일이며 조선말을 배우거나 배워주기도 하던 나날들, 강사가 되었어도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사적지들을 찾는 재중동포들

이던 일, 동포들을 찾자고 하면서도 뚜렷한 방도가 없어 고심하면서 그리고 다른 동포의 집에 불행한 일이 생기여도 저마끔 찾아가 위로나 해주던 일…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는 자기들의 조직이 생기였다. 가슴에 쌓이고쌓였던 일들이 물먹은 담벽처럼 없어지고 가슴속에는 환희가 차넘치였다.

동포들이 있는 곳마다에서 생기와 활력이 넘쳐났다.

사는 곳마다에 지부들이 조직되고 정연한 조직체계가 서나갔다. 그러니 동포들을 하나의 힘으로 둑어세우기도 좋았고 흩어져있는 동포들을 찾아내는데도 좋았으며 조국을 위한 일을 더 많이 찾아하도록 하기 위한 사

는 것도 빛이 났다.

동포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서 동포조직을 찾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을 터놓기 위해서 조직을 찾아갔다. 그러면 기쁨은 바로 커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도도 생기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조국을 알게 되었고 조국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총련합회는 동포들의 어머니였고 길동무였으며 조국과 그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인전대였다.

오늘도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동포들이 조국을 더 잘 알게 하고 조국과 발걸음을 함께 해나가며 또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도록 하기 위한 사

업에 모를 박고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하기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최수봉은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이 없으면 못 산다는것이 우리 재중동포들의 마음입니다. 지금 총련합회안의 수십여 개 지부성원들은 언제나 조국에 마음을 얹고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열의에 차넘쳐 있습니다. 저희들은 더 많은 동포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조국의 귀중함을 알려주어 그들이 언제나 조국을 위한 한길을 꿈꾸어 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안고



민족성을 적극 살려나가는 동포들



자기 힘으로 걸어나가는 조국



나는 조국에 자주 온다.
하지만 올 때마다 달라지는
것이 조국의 모습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다음 조국에 올 때 우리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러나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선 룹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평양민속공원 등을 보며 너
무도 놀라와 우리는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다음에 조
국에 오니 이번에는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위성과학자주
택지구가 일떠서 또 한번 놀라
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평
양양로원이며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의 웅장한 모습이
우리들의 눈을 빼앗아갔다. 더
우기 라선시에 펼쳐진 선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감동을 안
겨주었다.

자연재해는 시간을 따로 주
지 않는다. 조국에 오기 전에
나는 라선의 피해상황을 보면
서 놀랐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아마 저런 큰 피해는 1년동안에
가시기만 하여도 큰 성과일것이

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피해는 1년이 아니라 한달남짓한 기간에 그것도 최상의 수준에서 가셔졌다.

걸음마다 따르는 적들의 반공
화국책동을 짓부셔야 하고 조선
로동당창건 70돐행사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하는 그 바쁘신 속에
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두 차례나 라선시를 다녀오시였다.

하늘길, 땅길, 배길을 달려
라선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수한 운동화를

로 당당하게 걸어나가고 있으며
무엇을 하나 건설하고 일떠세워
도 최상급으로, 보란듯이 해나
가고 있다.

언제인가 우리 중남지구 동
포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였다. 그때 우리의 화제는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남
조선땅에서 벌려놓은 전쟁연습에 대해서였다. 조국의 실정을 잘 모르는 동포청년들은 제
나름대로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었다.

나는 그때 그들에게 조국인
민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
의 전쟁연습책동속에서도 한편
으로는 조국을 지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자기의 힘으로 부강
조국을 건설해나가고 있다, 그
려니 조국과 마음을 합치고 조
국의 힘찬 발걸음에 우리의 발
걸음을 맞춰나가야 하지 않겠는
가고 말하였다. 그제서야 동포
청년들은 공화국정부의 립장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국을 위한 일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저저마다 말하였다.

정말이지 우리에게 자기 힘
으로 모든 고난을 헤치며 당당
하게 보란듯이 걸어나가는 조국
이 있어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
리도 그렇듯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헤치며
떳떳하게, 당당하게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 김송미

시

삼가 꽃바구니 드리옵니다



평양의 저녁

- 평양친선병원 정원에서 -

하늘에선 뜻별들이 반짝이는데
병원앞 고층살림집 불밖은
창문들에선
들려오누나 사회주의 내 조국의
노래이런가
행복한 가정의 웃음소리…

들려와라

거리를 달리는 빠스며
승용차들의 경적소리
퇴근길의 활기찬 사람들의
떠들썩
조선로동당의 70년 위훈을
구가하는
대동강반 1만명의 대공연노래
소리…

그 노래속에 울려온다
애육원과 육아원, 평양양로원의
창문을 흔드는
원아들과 보양생들의 웃음소리
릉라꼽등어판의 환호성과
승마구락부의 말발굽소리

출령이는 대동강 《무지개》호

에선 날아올라라

행복넘친 즐거운 인민의
웃음소리

사회주의선경으로 일떠선
라선지구의 새집들이소식

하늘에선 우리가 제작한

비행기가 날고
지하에선 우리가 만든 전동차가
달리는 소리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타빈이
돌아가고

미래과학자거리와 과학기술

전당이 일떠서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소리

스스로 군복을 입었다는 처녀
수년간 최전연초소에서
원쑤와 총부리 맞대고 조국을
보위한 처녀

환자들을 대할 땐 간호원의
그 눈
정성과 즐거움에 빛나는
아름다운 구슬
허나 총을 들고 침략자들을
겨눈다면
원쑤들에게 다시없을 멸망의
함정!

나는 보았다
간호원의 아름다운 그 눈길에서
인민들에겐 한없는 정에 넘치고
원쑤들에게 더없는 증오심에
불타는
청년강국의 활화산같은 사랑과
증오를!

투약시간에

내 몸에 흘러든것은
약이 아닙니다
조국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보답의 불덩어리

내 몸에 흘러든것은
약이 아닙니다
가슴에 재워지는 화약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애국의 총폭탄!

나는 창문을 열어제낀다
- 늦가을비 창문을 두드리는
입원실에서 -

늦가을 찬바람 거세차지누나
락엽은 여기저기 날려가누나
하늘엔 검은구름 뒤덮이고
차거운 가을비 그칠줄 모르는구나

병석에 누워있는 환자의 마음

저도모르게 집생각 가득차올라
걸잡을수 없구나 쓸쓸하고
불안한 마음
호전되던 병세마저 되돌아설듯…

하나 아니할 생각
입원실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웃음많은 담당간호원 들어섰거니
반쳐든 아침식사그릇에선
더운 김이 무럭무럭…

접적액은 더워있고
이불밑 더운 물병 온몸을
덥혀줄 때에
어디로 사라졌나
창밖의 비바람소리…

오, 이때라 이 순간
가슴몽클 다가오누나
어머니의 얼굴…
안해의 얼굴…

매아닌 늦가을비 나무잎을
떨구고
비바람 세차게 몰아쳐와도
따뜻이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조국의 뜨거운 사랑…

기쁨에 겨워 행복에 겨워
나는 힘껏 창문을 열어젖힌다
창밖에 비뿌리고 바람세차도
내 마음속엔
무지개 아름답고 해빛이
찬란하다!

안해와 나눈 조국01야기
- 중국에 있는 안해와 전화로
만나다 -

깜짝 놀랐다누나
입원치료 받는다는 갑작스런
소식에
전화기에 울려오는
당황하고 걱정스런 안해의
목소리

병원조건, 의료수준 괜찮은가
식사는 구미에 맞는가

불편한 점은 없는가
살틀하고 정깊은 안해의
목소리…

평양친선병원은
조국에서도 이름높은 병원
우리 해외동포들을 위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세워주신
병원

현대적인 설비에 의술높은
선생님들
문턱이 많도록 입원실문을
넘나드는
담당의사와 간호원의 정성어린
치료에
건강은 어느새 회복단계…

조국에선 무상치료제란 말은
들었어도
그것이 정말인지
치료비와 식사비를 걱정하는
안해의 혹시나한 목소리…

오, 이때라
내 가슴에 넘쳐나는
사회주의조국의 해외공민된
찌릿한 자부심이여!

침략의 피수 미제와 맞서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더란다
허나 변함없이 인민에게
베풀어진
무상치료제의 혜택
그속에 해외공민 우리들도
있었거니

정말 좋은 세상이다
국제전화라는것도 잊고
밤깊도록 그칠줄 모르는 우리
부부의 이야기
오, 무변광대 우주공간 넘나든
우리 부부의 어머니조국이야기…

새벽안개속의 친선병원 소묘

정원의 미남자 수삼나무 아직
늦잠자는데

언제 깨였나 대추나무우에선
다람쥐 오르락내리락…
건강을 회복한 나를 축하하는
음악이런가

새벽고요 흔들며 멀리서
들려오네
첫 뼈스의 은은한 경적소리…

어린시절 내 이마 짚어주며
열른 잠간 나을거리 다독여주시던
흰 머리수건의 어머니모습이런가
새벽안개속의 평양친선병원이여

불밝은 입원실창문가엔
안개라고 내려온 하늘나라
신선들인가
날 밝도록 정성을 명약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하얀 위생복의 의사와
간호원들…

입원실창가를 목빼들고 기우한
감나무여
그 어디에 또 있을손가
무상치료제의 지상락원
불빛에 반짝이는 아지마다
주렁진 빨간 감알은
나의 건강 축하하는 축포의
불꽃이런가

병원홀에 정히 모신
두분의 태양의 미소 눈부신 평양
친선병원이여
내 높뛰는 심장 들먹이며
온 세계가 찾아오는 너의 풀안에
서있노라

크나큰 걱정에 내 할 말을 잃고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 내 조국-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을 노래
하는
지구를 놀려디던 하나의 커다란
감탄표로
내 서있노라 온 세계를 향하여!

야단났다
야단났다
가을볕에 나무잎은 노랗고

빨갛게 구워지는데
락엽을 날리는 바람결에 실려
세월은 갔나
입원날자 꽉아보니 어느새
한달…

야단났다
10여년의 병조는 씻은듯이
사라지고
완쾌하게 되였노라 온 병원이
기뻐하는데
나는 새로운 병을 앓는다
어머니조국과의 작별의 아픔을
느낀다

야단났다
아침저녁 가슴에 넘치는 생각
퇴원하지 말았으면…
작별의 순간이 다가오지
말았으면…

야단났다
옆사람들 놀려주누나
간호원처녀를 사랑한다고 정이
들었다고
파연 그런 야단이 났을가…

환자를 위해
돌우에도 꽂피우는 정성을
쏟아붓고
며칠 밤을 새워도 기뻐만 하는
간호원처녀
환자를 위해
자기의 피와 살도 서슴이 없는
병원의사들…

누구인들 사랑하지 않으리오
이런 의사들 간호원들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사랑어린
인간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이런 병원을…

그렇다! 나는 사랑한다
간호원처녀를 담당의사를 온 병원을
병원뜨락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그 나무우의 다람쥐까지도…

야단났다
야단났다
입원날자 꽉아보니 어느새 한달…

10여년세월의 병조는 씻은듯이
사라지고
완쾌하게 되였노라 온 병원이
기뻐하는데
나는 새로운 병을 앓는다
어머니조국과의 작별의 아픔을
느낀다

말이 아니라 몸으로
알았습니다

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얼마나
큰줄을
사회주의조국이 얼마나 좋은줄을
말이 아니라 건강해진 몸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조국 헐뜯는 무리 얼마나
나쁜줄을
이런 조국 어떻게 지켜야 하는
줄을
말이 아니라 훤히해진 몸으로
알았습니다

작별의 순간이여!
- 평양친선병원을 퇴원하면서 -

끌내는 오고야 말았구나
그토록 걱정하고 근심했던만
그토록 오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랐건만
무정도다 정녕코 다가온 퇴원의
날이여
정든 병원 떠나야 할 작별의
순간이여

환자로 다시는 병실에 들여놓지
않으려는듯
차겁게 빛 뿌리는 침대며
랭장고며 물고뿌…
왜래서 이토록 눈물겹게
가고싶을가
매일 《공포》에 떨며 들어서던
이비인후과 치료실…

정답게 손저어주누나
아침저녁 산보길에 가까워졌던
담당의사 돌보는 밤나무며

간호원처녀 보살피는 은행나무
병원뜰안의 대추나무며 백살구,
단풍나무들
아지뻗쳐 바람결에 서로서로
흔드는 일새…

알았던가 몰랐던가 병원의 보건
일군들
복도에서 스칠 땐 그토록
점잖더니
너도나도 달려와 열싸안고
손잡고 앓지 말라고
나누는 작별의 인사 눈물겹도록
뜨거운데
한구석의 눈물만 글썽한
담당의사선생과 담당간호원
처녀…

울컥 치미는 감정 누르고 억지
웃음 지으며
잘 있으라 목메여 이 한마디
외울 때
끌내는 눈굽에 번쩍이는 뜨거운
이슬
마주잡는 손길은 왜 이다지도
서툴은가

잘 있으라 잘 가시라
그동안의 모든 사연 이 한마디에
담아
우리 서로 목메여 다시 외울 때
우리 서로 뜨겁게 열싸안을 때

그대들은 조국땅에서
나는 이국땅에서
고마운 우리 조국-원수님을
잘 받들자
쿵! 쿵! 지구를 울리는 심장의
박동이여
아, 맹세로 뜨거운 작별의
순간이여!

삼가 꽂바구니 드리옵니다

완쾌하여 병원문을 나서는
이 아침
평양친선병원중앙홀에 높이 모신
영원한 태양 수령님들의 텁상화

봄계절의 향취 풍기는 달래김치



어느덧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계절은 사람들 누구나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저의 집 밥상앞에 앉은 시부모님과 남편, 철부지 아들애조차 입맛을 싹 잊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뜨끈한 토장국과 김치, 깍두기를 다른 찬보다 앞에 놓고 밥 한그릇을 맛있게 들던 그들이였는데 이제는 봄김치맛이 꼭 그리운가 봅니다.

그래 저는 은근히 원심을 쓰다가 남새매대에 들려 달래를 한구역 챙겨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달래를 손질하는것을 본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리
삼가 꽃바구니를 드리옵니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해외공민이였습니다
천만년 세월가도 못다 갚을 그
믿음속에
결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그 사랑속에
오늘은 재중총련의 일꾼으로
자랐습니다

수십년 세월을 함께 살아온
다정한 안해도 자식도 별치 않게
여겨온 병
10년세월 그저그렇거니 않으며
길러온 병
보살펴 뜨겁게 보살펴 건강을
되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그 사랑…

먼곳의 자식들을 더 위하는
친어버이심정으로
불러주십니다
조국의 큰 명절 경사의 날마다
세워주십니다
온 거례 온 세계가 지켜보는
영광의 주석단에
안겨주십니다
자애의 은정어린 뜻깊은
생일상도…

대를 이어 베풀어지는
한량없는 사랑과 배려 너무도
고마워
눈부신 우리 해님-원수님 우러러
목메여 목메여 고마움에 눈물
젖는 저희들입니다
삼가 꽃바구니를 드리옵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르게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
원수님 가리키시는 무궁번영의
그 손길따라
여세계 여세계 통일강성국가
건설에 다 바쳐 갈 이 마음…

삼가 꽃바구니를 드리옵니다
우리 해외공민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다할
한마음 담아
불타는 맹세 철석의 신념으로
삼가 엮은 꽃바구니
우리리 우리리 위대하신
수령님들께 드리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최수봉

『달래를 보니 벌써 봄이 오긴 왔나보다. 거 달래가 정말 생신한데 당장 김치부터 담그자꾸나. 령감이 이 달래김치에 밥술을 뜰게다. …』

부엌에 달래 향기가 그득하고 시어머니와 저의 웃음소리까지 흘러나오자 시아버지도 남편도 흥그려운듯 웃음을 날렸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그며 생각하였습니다.

김치는 우리 인민들이 오랜 옛날부터 즐겨 담그어먹는 민족고유의 부식물로서 4계절 관계없이 남녀로소 누구나 먼저 찾는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라에서 어느때부터 김치를 만들어먹었는가 하는 것은 명확히 알수 없으나 지금까지 알려진 문헌자료에 의하면 이미 고려시기에 무우로 김장을 담그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봉건왕조 시기에 와서는 여러가지 맛좋은 김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치는 금과 같이 귀한 음식이라는 뜻에서 『금채』라고 불리우다가 점차 그 말소리가 바뀌어졌는데 영양학적으로도 가치있는 부식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김치는 겨울과 이른봄에 이르는 기간에 비타민 C의 중요한 공급원천이며 Na(나트리움), K(칼리움), Ca(칼시움), Mg(마그네시움), P(린), Fe(철) 등 각종 무기성분의 원천으로도 됩니다.

김치는 염기성식료품으로서 산성식료품인 밥과 고기, 물고기음식에 대한 식욕을 더욱 높여줍니다. 따라서 하루에 200~300g의 김치를 먹으면

무기성분에 대한 영양학적요구를 만족시킬수 있게 됩니다.

김치의 가지수는 수십여가지나 되는데 어느때 만들어먹는가에 따라 크게 봄김치, 여름김치, 가을김치, 겨울김치로 나눌수 있습니다.

더우기 이른봄에 담그어먹는 달래김치의 그 맛과 향기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그래서 달래김치를 만들어보려고 팔을 걷고 나서니 문득 언제인가 제가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을 찾았을 때 급양학부 조선료리강좌 교원 리광훈이 학생들의 달래김치만들기 실기강의를 지도하던 것이 생각하워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달래는 파파의 여러해살이풀인데 우리 나라 각지의 낮은 산과 들에서 자라고있습니다. 달래에는 단백질, 지방, 당질, 광물질[Ca, P, Fe, Co(코발트)], 비타민(B₁, B₂, C, PP) 등이 들어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캐서 나물로 먹습니다. 달래에는 단맛과 매운맛이 있으며 독특한 냄새를 풍겨 입맛을 돋구어줍니다. 고추장이나 초간장에 무쳐먹거나 김치, 장절임을 만들수 있고 양념감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달래김치감으로는 달래 1kg일 때 무우 0.5kg, 고추가루 25g, 소금 30g이 드는데 마늘과 파는 넣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달래를 뿌리채로 깨끗이 씻고 무우는 굽게 채칩니다. 그릇에 달래와 무우를 담고 고추가루, 소금을 둔 다음 골고루 버무려서 단지에 눌러 담습니다. 30분정도 있다가 1%의 소금물 1L를 붓고 단지뚜껑을 꼭 덮어 익힙니다. 김치가 익기 시작하면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때 랭장고나 찬곳에 보관하여야 시여지지 않고 맛이 좋아집니다.』

저는 그의 말을 상기하면서 달래김치를 담그었습니다.
다음날 잘 익은 달래김치를 저녁상에 올렸는데 온 집안식구가 맛있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도 모두 달래김치맛에 입맛이 돌아선다고 좋아들 하였습니다.
동포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달래김치를 맛있게 담그어 식탁우에서 봄향취에 젖는 기쁨의 순간을 어디 한번 느껴보십시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리명국



아동자전거에 깃든 마음



홍영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는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홍영순동포를 두고 누구나 《우리 할머니》라고 부른다.

우리 할머니, 바로 여기에 홍영순동포의 인간미가 비껴 있다.

그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처럼 늘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정성사업을 매일과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총련합회와 길림지구협회에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일들에 언제나 발벗고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길림에 오는 혁명전적지답사성원들을 위해 식사보장을 비롯하여 온갖 성의를 다하고 있다.

조국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늘 조국의 신문, 방송을 듣고 텔레비죤도 보면서 좋은 일을 찾아하고 있는 그다.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그는 육아원, 애육원원아들에게 안겨줄 2 000 자루의 그림연필과 면으로 된 2 000개의 손수건, 70대의 아동

자전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자전거는 아이들이 보기만 해도 누구나 타고 싶어하는 자전거였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마련하기 위해 적지 않은 걸음을 하였다.

그의 자식들은 걷기 힘들어하는 속에서도 매일이다신이 상점에 가는 어머니를 보고 아동자전거야 한곳에서 그냥 사도 되겠는데 여러곳을 돌아다니며 하나하나 골라야 하겠는가고 어머니에게 물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늙으면 자기 생각도 좀 해야지 그렇게 돈을 다 쓰면 어떻게 하는가고 하면서 편안도 주었다.

그럴수록 홍영순동포의 머리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매달려 어쩔 줄 몰라하던 평양과 원산의 육아원, 애육원원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고아라는 불행의 대명사로 불리워야 할 그 애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속에 궁전 같은 새 집에서 부러움을 모르고 자라고 있는데 나도 그들의 얼굴에 웃음을 더해주어야 한다. 내가 하는 일이 조국에 큰 보탬은 못된다 하더라도 그이의 발걸음에 나를 따라세워야 한다.)

그는 길림뿐 아니라 상해를 비롯한 여러곳을 다니며 아이들이 타기도 편리하고 놀이기능도 많은 자전거들을 끝내 마련하였다.

70대의 자전거를 앞세우고 조국에서 진행되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오는 그의 발걸음은 나래라도 돋친듯 가벼웠다.

웠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며 그의 두손을 잡고 놓을 줄 몰랐다.

그리는 그들에게 홍영순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예로부터 자식 하나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했거늘 부모없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새 집을 지어주고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면서도 온 나라 인민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이 뭐 크겠습니까. 그저 조국을 위한 길에 저의 남은 생을 깡그리 바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본사기자 임향십

유모아

먼저 앉으려다

한 청년이 공원에서 놀다가 지쳐서 앉을 자리를 찾았다. 마침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결상이 하나 있어 가서 앉으려 하였다. 이때 한 로인도 그 결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청년은 빨리 가 앉으려고 걸음을 재촉하였다.

로인이 소리쳤다.

《젊은이, 좀 기다리게.》

젊은이는 못 들은척 하고 먼저 텔썩 주저앉았다.

로인은 무릎을 탁 치며 《이 사람아, 이 결상은 금방 라크칠을 했단 말이야.》하고 말하였다.

《아?!》

청년은 갓 사업은 새 양복을 바라보며 후회하였으나 때는 늦었다.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4)

- 보통문 -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 우리는 《보통송객》으로 유명한 보통문으로 향하였습니다. 보통문은 평양시 중구역 보통문동에 있습니다.

보통문은 6세기 중엽 고구려가 수도성인 평양성을 쌓을 때 함께 세웠습니다. 지금 있는 건물은 여러차례 보수개건되어 오다가 1473년에 고쳐지은 것입니다.

보통문은 평양성 서북쪽 방향으로 통하는 관문으로서 국방상 또는 교통상 중요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고구려 시기부터 고려와 조선봉건왕조 시기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시 되었습니다.

웅장하면서도 균형이 잘 째인 아름다운 건물인 보통문은 고려건축양식을 많이 보여줍니다.

보통문은 화강석을 다듬어

쌓은 축대와 그 위에 세운 2층 문루로 이루어져 있는데 축대 복판에 무지개문길을 내고 문길 앞쪽에는 앞뒤에 쇠조각들을 줄지어 입힌 튼튼한 널문을 달았습니다.

지금도 널문과 그것을 잡고 고멈추고 하던 시설들이 남아 있습니다. 높이 쌓아올린 축대(너비 4. 4m, 높이 4. 55m)

의 무지개문길은 선조들의 높은 돌쌓기기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문루는 정면 3간(14. 8m), 측면 3간(9. 15m)이며 배부른기둥들이 두공을 이고 그우에 2층의 날아갈듯 한 합각지붕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바깥기둥들은 1층의 지붕에 이어지고 집안의 4개의 기둥은 1층에서 2층까지 관통되어 있습니다. 바깥기둥과 간기둥 사이에 연결된 보우에는 짧은 2층기둥이 놓여 있는데 두공은

1층과 2층에서 안팎이 다같이 3포로 되여있습니다. 문루의 2층에는 모서리기둥을 세우지 않고 1층추녀의 뒤초리가 기둥을 대신하게 하였으며 마루 도리밀에는 아름다운 화반대 공을 세우고 그 좌우에 활개를 받쳐 집의 억세기를 높이 였습니다.

보통문은 다른 성문들에 비하여 전체 높이가 조금 낮고 또 1층면적에 비하여 2층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게 되여 있습니다. 측면에서 1층 양쪽 바깥기둥의 밑둥과 마루도리를 연결하는 3각형 그리고 정면에서 축대바닥 양쪽 끝과 문루의 끝마루중심을 연결하는 3각형은 거의 정3각형에 가깝게 되어있어 장중하고도 안정한 느낌을 줍니다.

보통문에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인민들과 군사들이 보통문으로 돌입하여 성안에 일시 도사리고 있던 적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준 이야기와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주체41(1952)년 8월 미제의 폭격으로 보통문이 불길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 평양시민들이 희생적으로 불을 끄고 살려낸 이야기 등 민족문화유산을 지켜오는 과정에 남긴 이야기도 깃들어있습니다.

본사기자 한신애



신묘한 명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전에 있은 일이다. 그때 우리 나라에는 송석이라는 이름난 화가가 있었다.

그는 살림이 째지게 가난하여 언제나 먹고 살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속에서도 미술창작에 전심하였다. 안해는 삼바느질, 삼빨래를 하며 아득바득 애를 썼으나 하루 세끼 죽물도 끓이지 못하였다. 안해는 지쳐 몸져눕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날 춘파라는 친구가 송석을 찾아왔다. 그는 홍도사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사신의 수원으로 가는데 그가 부채에 그림 하나를 잘 그려 가지고 가서 우리 나라에도 대가가 있다는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서 멋진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였다.

송석은 춘파의 거듭되는 권고에 못이겨 미숙하나 한번 그려보자고 대답하였다.

송석은 만능의 화가였다. 특히 그는 나비와 풍경의 명수였다.

때마침 봄인지라 여려날을 두고 내가를 오락가락하며 물새 한마리를 잡아온 그는 물새를 며칠 동안 보고 또 보고나서 붓을 대기 시작하였다.

약속한 날까지 물새그리기를 다 끝낸 송석은 부채를 찾으러 온 홍도사에게 부채를 언제나 한꺼번에 다 펴지 말고 절반씩만 펴라고, 그렇지 않으면 물새가 생기를 잃는다고 말하였다.

그의 말대로 절반씩 부채를 펴보고난 홍도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하였다.

《파연 신묘한 명화요. 래년 봄에 다시 찾아와 뵙겠습니다.》

홍도사가 다른 나라에 가있던 어느날이였다.

홍도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그 나라 사람이 그의 부채를 유심

히 보고나서 《귀객이 가지신 부채의 그림이 참 신묘하오. 은 5 000냥을 기념으로 주겠으니 그 부채를 내게 주시오.》라고 말하였다.

홍도사는 은 5 000냥이라는 말에 하마트면 입을 껑 벌릴뻔 하였다. 그래서 그는 부채를 은 5 000냥을 받고 팔았다.

그런데 그 이튿날 배놀이가 있었는데 배놀이가 절정에 올랐을 때 부채를 산 사람이 부채의 한편을 훤헤였다. 그러자 고운 물새가 포르르 깃을 치며 부채에서 날아나와 물속을 자매질하더니 눈부신 진주 한알을 물고 돌아왔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야! 야!》 하며 환성을 올렸다. 소문은 삽시에 퍼져 그 나라 사람들 속에 그 그림을 그린 조선의 화가 송석에 대한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졌다.

홍도사는 부채를 판 후회가 컸다.

이듬해 봄 홍도사는 다른 나라에서 돌아오는 길로 송석을 찾았으나.

그런데 이때는 벌써 송석의 안해는 굽어죽고 송석은 영양부족으로 그만 눈을 보지 못하는 폐인이 되었다.

홍도사는 부채를 판것은 나라의 국보를 하나 판것으로 되니 죄를 지었다고 그 원통함을 가슴두드리며 말하였다.

송석은 홍도사의 말을 듣고 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생각도 짧았댔소. 천하명화를 내 손으로 내주어 남의 나라에 판셈이요. 내 눈이 먼 것이 우연치 않소이다. 어찌 천벌을 안받겠소.》

이 소식이 온 나라에 퍼져 많은 사람들이 송석에게 그림을 청탁하러 찾아왔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송석이 맹인의 몸으로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 * *

그래서 말이 좋은거지.》

《그렇지만 대감님의 인품이 깎이지 않으시나요.》

《허허, 쇠득아, 그런게 아니란다. 사람의 인품이란 타고다니는 물건에서 오르내리는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는것이니라. 그러니 인품을 위해 무엇을 타고다녀야 하는지를 걱정할게 아니라 사람됨됨에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는지를 걱정해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그러니 더는 그런 걱정일랑 말아라.》

리황의 말에 쇠득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후부터 쇠득은 그에게 다시는 초현을 탈것을 더 권하지 못하였다.

* * *

역사인물

발해 봉건국가의 건국자 대조영

대조영은 7세기말부터 8세기초까지 생존하면서 발해봉건국가를 세운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는 이전 고구려 왕조의 장군이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귀족이 되고 장군이 된 대조영은 당시 뛰여난 지략과 무술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고구려가 무너지게 되면서 일부 유민들과 함께 료하를 건너 영주지방(오늘의 료서, 열하일대의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방)으로 강제로 이주되게 되었다. 당시 이곳으로는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적지 않은 말갈인들도 이주되게 되었는데 대조영은 아버지와 함께 고구려 유민들로 폭동군을 조직하는 한편 말갈족, 거란족과 련합하여 당나라강점군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군은 영주의 동쪽 및 동남쪽지역의 여러 성을 쳐서 당나라군을 소멸하였으며 이어 료서고성(대릉하하류지방)에 옮겨와 있던 《안동도호부》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다.

거듭되는 타격을 받은 당나라군은 리해고가 지휘하는 대군을 파견하여 고구려군과 말갈군을 《토벌》 하려고 하였다.

당나라군은 먼저 말갈군과 맞다들었다. 말갈군은 용감히 싸웠으나 력량상 차이로 결국 부대가 격파되게 되었다.

이에 기가 오른 적장 리해고는 이번에는 고구려군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적들은 대조영이 이끄는 고구려군의 매복진에 걸려 거의 전멸당하였고 리해고 자신도 겨우 목숨이 불어 도망치고 말았다.

당나라군은 이 전투이후 더는 《토벌》에 나서지 못하였다.

이 전투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한 고구려군은 대조영의 지휘밑에 료하를 건너 계속 동쪽으로 진군하였으며 다시 송화강상류 휘발하를 건너 동모산에 자리잡았다.

대조영은 동모산을 근거지로 하여 이전 고구려령역안의 많은 유민들을 집결하고 그들 사이의 련합을 강화하면서 적들의 침입에 대처할 준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투쟁과정에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봉건 세력집단이 형성강화되게 되었다.

이에 맞게 대조영은 이미 이룩한 군사적승리와 정치적 력량에 기초하여 698년 새 봉건국가인 진국을 세우고 제1대왕으로 되었다. 그리고 713년에 나라이름을 발해로 고치였다.

그는 나라의 령토안정과 경제, 문화적 발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 * *

사화

초현보다도 말을

나서다가 한마디 하였다.

《대감님!》

《왜?》

《말씀드리기 외람되오나 이젠 제발 말을 타지 말고 초현에 오르시오이다. 대감님보다도 벼슬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다 초현을 타고다녔지만 리황만은 항상 말을 타고다니였다.

이에 대하여 그의 하인인 쇠득은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왔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이날도 쇠득은 말을 타고 관청으로 나가기 전에 창피스럽나이다.》

《하하, 창피스럽다? 그러니

나더러 말을 타지 말고 초현을 타고다니란 말이구나.》

《예.》

《그런데 초현을 타는것보다 난 이 말을 타는것이 더 편하구나.》

《편한것이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구. 초현을 타자면 여러 사람이 나를 위해 따라다녀야 하지만 말을 타면 네가 없다고 해도 나흔자서도 아무데 건 다닐수 있으니 남에게 수고롭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느냐.》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민족예술

14세기말부터 19세기 중엽에 이르는 조선봉건왕조시기 민족예술은 커다란 발전을 이루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전반기인 14세기말부터 16세기에는 봉건적인 정치제도, 경제제도, 문물제도가 강화되는 사회적환경속에서도 궁중예술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 시기 민족예술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적성격이 더욱 강해지고 모든 예술형식들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지방적특색이 뚜렷한것이였다.

민족음악분야에서 전통적인 민요의 창작이 활발해지고 그에 토대하여 직업적인 음악형식들과 궁중음악의 형상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구전으로 전해오던 민요들이 조선민족글자인 《훈민정음》으로 서사화되고 삼국, 발해 및 후기신라, 고려때의 민속가요들이 모두 수집정리되었으며 인민들의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반침략투쟁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로동민요, 사회정치민요들이 수많이 창작보급되었다.

직업적인 민간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이 강화되고 악기제작기술도 발전하였으며 그 예술적형상이 더욱 높아졌다. 《산조》와 같이 민족성이 강하고 예술적기교가 높은 기악독주곡들도 창작되었을뿐아니라 기악연주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정간보, 합자보가 창안리용되었고 수많은 기악명수들도 나왔다.

대중적인 민족음악의 발전을 토대로 하여 궁중예술이 발전하였다.

1488년 3월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에 왔다가 돌아간 동월이 쓴 《조선부》에 의하면 이 시기 립

시적인 공연무대인 산대는 채색비단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있고 악기들의 음악소리가 서서히 울리는 가운데 한사람의 량어깨에 두 아이가 올라서서 춤을 추는 《동자무》, 땅에서 재주를 부리는 《근두》, 《보색》, 《곰탈춤》, 《밀탈춤》, 《사자춤》, 《원양무》등과 같은 다양한 작품들이 공연되었다고 한다.

인민들은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정서생활과정에 다양한 민요들을 지어부르기도 하였다.

민속무용도 대단히 발전하였다. 평안도, 황해도의 《닐리리타령》, 함경도의 《돈돌라리》, 강원도의 《회양닐리리》, 전라도의 《강강수월래》, 경상도의 《쾌지나 칭칭 나네》, 《옹해야》와 같이 각 지방들에서의 민속가무들은 인민들의 로동생활을 적극 고무하였다. 궁중에서는 전통이 오랜 궁중무용들이 모두 민족적인 미감에 맞게 새롭게 형상되고 의상과 무대장치, 소도구들이 더 화려해졌으며 무용수도 늘어나고 그 예술성이 높아졌을뿐아니라 궁중제례악무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용무보》와 같은 무용보도 창안되었다.

나라의 각지에서는 농악무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17~18세기 상품화폐관계의 발전과 함께 탈춤이 근로대중속으로 그 공연무대를 젖기였다. 대표적인것은 《봉산탈춤》, 《해주탈춤》, 《강령탈춤》과 같은 황해도탈춤과 《개성산대놀이》, 《송파산대놀이》를 비롯한 경기도산대놀이와 함께 《통영오광대》, 《가산오광대》를 비롯한 경상도오광대놀이 그리고 《북청사

차탈춤》 등을 들수 있다.

정서생활이 더욱 다양해지는 것과 함께 민속화, 민속공예분야도 발전하였다.

중세기 봉건통치배들의 사치와 향락에 리용되던 그림들이 근로대중의 생활에도 적극 리용되게 되었으며 방안장식, 가정의 희석에서 민속화의 기능이 높아졌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명화가들로서는 김홍도, 신윤복, 김안로, 김윤보, 양기훈, 우진호, 황성하, 허련, 지창환, 우상하, 김준근 등이 있다.

이 시기 인민들은 아름답고 민족성이 강하면서도 은근한 고려청자제작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조선봉건왕조자기기술을 부단히 높여나갔는데 대표적으로 청자, 분장자기, 백자, 진홍자기, 석간주자기 등 다양한 자기제작기술이 전해지고 있다.

이밖에도 금속공예, 목공예, 돌공예, 종이공예, 대공예, 초물공예, 천공예, 라전공예, 부채공예, 수예, 매듭공예 등 재료에 따르는 공예분야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민간극, 민속설화, 민족교예와 같은 민족예술의 여러 방면이 다같이 발전하여 민족예술발전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봉건왕조시기 우리 인민은 뛰어난 예술적재능과 슬기를 보여주는 우수한 민족예술작품들을 수많이 창조하고 그 예술적형식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민속학연구소 박사 김선영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외세가 강요한 민족의 분렬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고 있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지난해에 공화국은 온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것을 호소하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북남관계개선을 바라지 않는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은 외세와 작당하여 공화국의 《체제변화》와 일방적인 《제도통일》을 로골적으로 추구하면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였다. 이로 하여 모처럼 마련되었던 대화분위기는 사라지고 나중에는 교전직전의 위험천만한 사태까지 빚어졌다.

지난해의 사태는 조국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남조선집권세력의 매국반역행위를 끌어내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가도 개선될수 없고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재난이 들씌워지게 될것이라는 쓰라린 교훈을 다시금 새겨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것도, 우리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것도 다름아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약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에 매여달리면서 민족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있다. 이것은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이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운명의 주인은 그 민족자신이며 민족운명개척의 길을 열어나갈 힘도 그 민족자신에게 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외세를 등에 업고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위력한 공화국을 감히 해치려고 해덤비는것이 야말로 어리석은 망동이 아

닐수 없다.

외세의존의 종착점은 파멸이다. 비굴한 외세의존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따르고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를 실현하는것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는 길이다.

동족을 우선시하고 동족끼리 힘을 합치면 북남관계도 개선되고 대화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리지만 외세를 중시하고 그에 의존하면서 동족과 대결하면 대화와 협력의 길이 막히고 불신과 긴장이 고조되어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된다는것은 꼭절많은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슬기와 재능이 뛰어나고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가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고 부러울것이 없으며 못해낼 일도 없다. 민족자주, 우리 민족끼리에 오늘의 정세하에서 겨레가 력사의 도전과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미래에로 나아갈수 있는 길이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반통일세력의 사대매국적인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립장은 자주통일의 시대적흐름에 등을 돌려대고 외세와 야합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사대매국세력의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자기 민족의 리익보다 외세를 더 중시하면서 그에 아부굴종하고 외세의 리익을 위해 민족적단합과 통일을 반대해나서는 사대매국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이 화밖에 당할것이 없다.

외세와 그 주구들의 반통일책동은 날로 더욱 악랄해지고있지만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민족의 진군길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밀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짓밟히우는 여성들

오늘 남조선에서는 더해지는 경제파국과 늘어나는 교육비, 양육비로 하여 대다수의 여성들이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기고 있다. 그로 하여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자식낳아 키우는 것이 두려운 사회』, 이것이 오늘 남조선 여성들 속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다. 세상에서 모성애가 가장 뜨겁다고 하지만 남조선 사회에서는 그것이 왕가물로 말라가고 있는 시내 물처럼 되어가고 있다.

얼마전 한 국제기구가 발표한 데 의하면 남조선의 출생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에 대해 남조선의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이 땅은 늙어가는 나라』로 되여가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심해지는 이 사회의 앞날, 미래는 암담하다.』고 개탄하였다.

더우기 놀라운 것은 살림이 어려워 여성들 속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사건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두해

전에만도 서울시 송파구에서 살던 한 여인이 더는 살래야 살길이 없어 두 딸과 함께 세상을 저주하며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30대의 한 여성이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15층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남조선 여성들 속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생각해주어야 한다.』, 『마음놓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 『아동성 범죄에 대한 어머니들의 불안을 덜어달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이것은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려는 그들의 소박한 심정이였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선거 당시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당선되면 여성들을 <정부> 요직에 등용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육정책 등 여성정책을 핵심으로 삼겠다.』고 뭐니 하며 화려한 공약들을 내흔들었다.

그로 하여 적지 않은 남조선 여성들이 『혹시 우리들의 처지를 개선해주지 않겠는가.』 하는 미련을 품었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갓 선거유세

를 위한 화려한 미끼에 불과하였다. 오늘까지도 남조선 여성들의 생활처지는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차례지는 고통과 불행은 날이 갈수록 가혹해지고 있다.

『당선되면 여성들을 요직에 등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보면 차관급 이상 공직자 211명 중 여성은 단 11명에 불과하고 공공기업체들에서 여성은 사무직을 차지할 확률은 놀랍지만 0.0002%로 거의나 렇이다.』

이것은 남조선의 한 언론이 현 괴뢰집권자가 내놓은 선거공약과는 너무도 판이한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폭로한 글의 한 토막이다.

남조선에서 여성취업률은 매우 낮으며 그나마도 여성취업자의 3분의 2가 비정규직로동자이다. 여성로동자들의 70%는 로동조건이 매우 한심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으며 남성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도 2중3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어느 한 기관이 남녀간의 임금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성로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로동자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였다.

남조선 각계가 『녀성지위가 세계최하위인 남조선』, 『녀성 차별의 세계적교실』, 『손상되는 여성존엄』이라고 개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은 남녀 불평등이 가장 심한 곳일뿐 아니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범람하는 곳이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 사건들로 하여 주민들 속에서는 『약한 아이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잦아지고 세상이 무서워지고 있다.』, 『딸가진 부모들이 어떻게 마음놓고 살겠는가.』라는 아우성이 높아가고 있다.

한편 수많은 남조선 여성들이 성노리개로 전락되어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125만여명의 여성들이 매춘의 길에 나서고 있으며 남조선에서의 성매매 산업은 7조원 규모에 이르렀다고 한다.

남조선에 펼쳐진 비참한 현실은 여성천시의 사회적 풍조와 정치체제를 고착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아름아닌 괴뢰당국이며 반역통치배들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 앉아 있는 한 여성들의 권리에는 영원히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강진성

국명장들의 전기 가운데 하나인 최영의 전기를 『최도통전』이라고 하였다. 조선봉건왕조 시기에 리가성을 가진 정승은 리정승, 김가성을 가진 판서는 김판서라고 불렸다.

판리를 부를 때 성과 이름 사이에 벼슬이름을 끼워 부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고려 말 정당 문학 벼슬을 지낸 안목을 안정당목이라고 한 것이 그러한 실례이다. 지어 고을 원인 경우 성과 이름은 부르지 않고 그가 원노릇을 하는 고을 이름만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지울수 없는 문화재략탈범죄 (2)

이번 호에서는 『명치유신』 후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길에 나선 근대시기부터 조선문화재를 파괴·掠奪하였으며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책동한 일제 침략자들의 만행에 대하여 깨닫혀보려고 한다.

- 조선문화재략탈의 법적 『담보』 마련을 위해 -

일제 침략자들은 19세기 말 조선봉건정부를 강압하여 『문호 개방』, 『통상』의 미명 하에 조선으로의 침략의 길이 열리자 일화천금을 꿈꾸는 무직간달군들과 같은 무뢰한들을 조선에 들어 보내어 조선문화재들을 마구 파괴·掠奪하는 한편 어용학자들을 『조사』의 미명 하에 파견하여 랙탈을 감행하도록 하였다.

교활한 일제 침략자들은 우선 이러한 파괴·掠奪에 대한 합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일제 침략자들은 청일 전쟁 당시 별씨 조선의 유물들과 보물들을 랙탈하기 위해 1894년 『전시청국보물수집방법』을 공포하고 조선의 문화유물들을 닥치는 대로 랙탈할 수 있게 규정해 놓았다. 여기서 일제는 일본문화의 근저는 조선과 중국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일본의 고유한 성질을 명백히 함에 있어서 이들과 대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륙린방의 유존품을 수집하는 것은 최대의 요무에 속한다고 문화유물 랙탈을 『정당화』하고 동양의 보물은 그 정수를 일본에 모두 어들임을 완성 할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과 중국 등 동양의 우수한 걸작들을 일본에 걸어들일 것을 규정해 놓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나라(일본)의 빛을 뿌리는 바라고 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재 랙탈을 극구 찬양하고 추동하였다. 이

문화재 파괴·掠奪에
앞장섰던 『조선고적
조사위원회』 성원들
의 일부



상식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 관직, 관리를 부르는 말

조선봉건왕조시기 관직(직함이라 고도 하였다.)을 공식적으로 부를 때에는 맨 먼저 벼슬등급, 다음에 관청 이름, 끝으로 관직이름을 불렀다. 그 러되 형사, 판사, 지사 등의 관직 이름에서 『령』, 『판』, 『지』 자는 관청이름 앞에 붙이였다.

례를 들어 상서병부판사는 판상 서병부사로, 장홍부지사는 지장홍 부사, 안악군 지사는 지안악군사 등으로 불렀다. 그리고 공신칭호를 받은 관리들은 고려때나 조선봉건왕조

때를 막론하고 그것을 제일 먼저 불이였다.

례를 들어 고려때 윤관의 벼슬이름을 부를 때에는 추충좌리평웅척지공신 문하시중 판상서리부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관리의 이름을 비공식적으로 간단히 부를 때에는 흔히 성과 벼슬만을 불렀다.

례를 들어 고려때 6도도통사를 지낸 최영장군을 최도통이라고 불렀으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나온 애



고적을 『조사』하는 일본의 어용학자와 도굴을 도와주는 일제경찰들

러한 침략적이며 파렴치한 『합법적』 군사지령에 따라 청일전쟁시기에만도 수많은 조선의 문화유물들이 파괴·掠奪당하였다.

당시 조선주재 일본공사였던 오또리 게이스케는 『일본거류민보호』를 구실로 일본사무라이들을 백주에 빼쳤이 조선왕궁에 침입시켜 수많은 문화유물을 랴탈하여 일본으로 빼돌렸으며 이로 인하여 수백년간 조선봉건국가가 축적해온 재보가 하루 아침에 도난당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로일전쟁이 끝나가던 1905년부터 1906년사이에만도 개성과 해주, 강원도 일대의 고려시기 고분 2 000여 기를 도굴하였으며 여기에서만도 100만여점의 귀중한 유물을 랴탈하여갔다.

일제의 조선문화재 랴탈을 위한 법적 『담보』 놀음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이후 더욱 꿀화되었는데 『통감』 통치시기인 1910년 4월 23일에 학부령 제23호로 제정된 『향교재산관리규정』과 1911년 6월 3일에 공포된 제령 제7호 『사찰령』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일제는 이러한 『고적조사사업』을 1915년에 일단락지었다가 1916년부터 계속하였다. 1916년 7월 『총독부령』 제52호로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을 제정 공포한 일제는 『학술조사』의 미명하에 수많은 고분들

을 파괴하고 유물들을 일본으로 수탈하여갔다. 이와 같은 악법들과 파괴·掠奪행위로 1920년대 말엽에 이르러 조선에서 성한 무덤이라고는 찾아볼수 없게 되였다.

오죽했으면 당시 어용학자였던 후지다가 『고분은 좌파되고 락랑의 고분을 비롯한 고분의 도굴, 석탑, 석등의 도굴도 현저히 증가되어 수년이 지나지 않아 벌써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태』라고 하였으며 우메하라도 『대정 12년-13년(1923년-1924년)에는 락랑고분군의 대규모 도굴이 있었다. … 이는 근년에 와서 더 심해져 우가끼총독으로 하여금 총독정치의 한 오점이라고 한탄케 하였다.』고 할 정도였다.

일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1933년 8월 9일 당시까지 조선에서

실시되고 있던 유적보존규칙의 불비한 점을 더욱 보강하여 제령 제6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공포하였다. 파쇼통치로 이행하던 1930년대 말-1940년대 초 조선에서 민족성을 고취하는 문화유물에 대하여 『사적파괴령』(1943년 11월 24일)까지 내렸으며 그해에 『유적의 숙정 및 반시국적 고적의 철거의 관한 건』을 발표하여 황산대 첨비와 합천 해인사에 있던 사명당의 석장비를 파괴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문화재 『보호』의 미명하에 법적 구속력까지 발동하여 조선의 우수한 문화유물들을 파괴·掠奪하였으며 나중에는 민족말살의 일환으로 써먹었다.

본사기자

* 복재기-지난날에: 상례에서 1년 이하의 상복을 입은 사람을 이르는 말.

-송곳이가 방식이가 되다

얼마나 이를 갈았던지 뾰족하던 송곳이가 방석처럼 넓적한 이로 되었다는 뜻으로 『매우 원통함』을 이르는 말.

-자식 떼고 돌아서는 어미는 밤자국마다 피가 고인다

낡은 사회에서: 어머니가 제 자식을 떼여놓는 일이 피를 흘리듯 몹시 피롭고 가슴아픈 일임을 비겨이르는 말.

-상재보다 복재기가 서리워한다

서러운 일을 맞은 상주보다도 결사람이 더 서러워한다는 뜻으로 당사자보다 결사람이 더 슬퍼하거나 걱정하고 관심을 가짐을 비겨이르는 말.

조선속담 (슬픔)

-물만 밥이 목엔다

물에 만 밥도 목에 잘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뽑시 슬프거나 친환경을 이르는 말.

-살아 생리별은 생초목에 불불는다 살아있으면서 리별함은 애간장이라는 일이라는 뜻으로 생리별은 차마 못할 일이라는 것을 비겨이르는 말.

-상재보다 복재기가 서리워한다

서러운 일을 맞은 상주보다도 결사람이 더 서러워한다는 뜻으로 당사자보다 결사람이 더 슬퍼하거나 걱정하고 관심을 가짐을 비겨이르는 말.

유적

최승대

최승대는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모란봉)에 있는 루정이다.

최승대는 고구려시기인 6세기 중엽에 처음으로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716년에 고쳐지었다.

최승대는 높은 축대 위에 성가퀴를 돌리고 그안에 세운 단층 겹처마 합각집이다. 정면 3간(7. 36m), 측면 2간(4. 67m)의 평면으로 되었으며 흘림기둥 위에 2억공두공을 얹은 화려한 루정이다.

이 일대에는 진달래가 많이 피여나고 매화나무, 측향나무 등이 소나무, 살구나무 등과 어울려 신비로운 절경을 이루고 있다.

최승대는 오늘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해금강의 파도 본사기자 최원철

처절썩, 처절썩…

조선동해의 푸른 물결이 해금강의 바위에 부딪치며 흔갈기를 날린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파로 맞으려는 조국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애국적열의인양 해금강의 파도는 잠들줄
모르고 끝없이 설레인다.